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교육 연구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양 일
(楊一, Yang Yi)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교육 연구

지도교수 민 현 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 일
(楊一, Yang Yi)

양 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원장	구 분 관	
부위원장	고 정 희	
위원	민 현 식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음화(鼻音化)와 유음화(流音化)의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는 표기와 실제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더라도 음운 변동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한국어에는 종성이 7개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종성이 'n'과 'ng'밖에 없다. 한국어의 음절 경계에서 자음과 자음이 연결될 때 매우 복잡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국어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크게 발음 오류 양상 조사와 발음 오류 원인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된 9항목에 적용되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학습자에게 읽어 보게 하고 녹음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3명이 따로 녹음을 듣고 발음 오류를 진단하였다. 통계 결과에 의해서 초·중·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차이를 비교하면 초급과 중급 학습자의 오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차이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가 중급에 올라가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향상된 반면에 중급 학습자가 고급에 올라가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서 퇴화라고 할 수 없지만 향상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학습자의 오류율과 해당 규칙에 대한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인지도가 높은 규칙의 오류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습자의 발음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내용을 녹음한 후에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 오류는 크게 규칙 인지를 못

해서 규칙 사용을 못하는 경우와 규칙을 인지해도 적용을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 인지를 못하는 원인은 주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복잡성과 교육적인 문제를 들 수 있고,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주로 음운 변동 규칙을 반응하는 시간이 부족한 원인, 음운 변동 의식이 약한 원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원인, 교육적 문제에 의한 원인 등이다.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지도 방법을 설계하였다. 발음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발음 지도 방안을 적용하였다. 학습자의 규칙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듣기 기반의 규칙 인식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음운 변동 규칙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원리 설명을 통한 발음 지도를 통해서 학습자가 비음화와 유음화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규칙 사용 향상을 위해서는 한·중 발음 대조를 활용한 발음 지도,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과제, 그리고 의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수·학습 모형을 '청각적 관찰 단계-규칙 인지 단계-원리 학습 단계-연습 및 산출 단계-정리 단계'와 같이 구성하였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발음 교육, 음운 변동 규칙, 비음화, 유음화, 오류 분석

* 학 번 : 2012-24031

차 례

국 문 초 록	i
차 례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7
II. 비음화와 유음화 교육을 위한 전제	11
1.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1.1. 음운 변동 규칙의 개념 및 분류	11
1.1.1.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기본 개념	11
1.1.2. 음운 변동 규칙의 분류	13
1.2.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과 원리	16
1.2.1.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	17
1.2.2.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리	19
2. 한·중 음운 대조 분석	23
2.1. 한·중 음절 구조와 음절 제약에 대한 대조	23
2.2. 한·중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대조	27
3.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	29
3.1. 분석 대상의 선정	29
3.2.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양상	30
3.3. 음운 변동 규칙 제시의 문제점	34
III.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의 오류 양상 및 분석	36

1. 조사 도구 개발 및 자료 분석 방법	36
1.1.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	36
1.2. 발음 오류의 원인 조사	38
2. 조사 결과 및 분석	42
2.1. 발음 오류의 양상 및 분석	42
2.1.1. 비음화의 오류	45
2.1.2. 유음화의 오류	54
2.2. 발음 오류의 원인 및 분석	57
2.2.1. 규칙 인지를 못하는 원인	59
2.2.2. 규칙 사용을 못하는 원인	61
 IV.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설계	65
1.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목표	65
2.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내용	67
2.1. 'ㄹ+ㄴ'의 교수·학습 내용	69
2.2. 비음화의 교수·학습 내용	71
3.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지도 방안	73
3.1. 규칙 인지 향상을 위한 발음 지도	73
3.1.1. 듣기 기반의 규칙 인식 과제	73
3.1.2. 원리 설명을 통한 발음 지도	75
3.2. 규칙 사용 향상을 위한 발음 지도	78
3.2.1. 한·중 발음 대조를 활용한 발음 지도	78
3.2.2.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과제	80
3.2.3. 의식 강화를 위한 과제	81
4.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실제	83
 V. 결론	93

참고문헌	97
부록	103
Abstract	105

표 차례

<표 II-1> 음운 규칙을 표현하는 기호의 의미	13
<표 II-2> 음운 현상의 다섯 가지 유형	13
<표 II-3> 변화 구조의 유형에 따른 음운 변동의 분류	14
<표 II-4> 동화, 이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분류	15
<표 II-5> 자음표	20
<표 II-6> 한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23
<표 II-7> 중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24
<표 II-8> 한중 음절 구조 대조	24
<표 II-9> 한국어의 자음연결 양상	26
<표 II-10> 한·중 음운 변동 규칙의 대조	28
<표 II-11> 중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	29
<표 II-12>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양상	30
<표 II-13> 비음화와 유음화의 제시 양상	33
<표 III-1> 비음화와 유음화 세분된 내용	36
<표 III-2> 초·중급 학습자의 오류율 비교	43
<표 III-3>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비교	43
<표 III-4> 규칙별의 오류율	44
<표 III-5> 'ㄱ'→[ㅇ]의 발음 오류	45
<표 III-6> 'ㄷ'→[ㄴ]의 발음 오류	46
<표 III-7> 'ㄴ'→[ㅇ]의 발음 오류	48
<표 III-8> 'ㄱ, ㅇ'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49
<표 III-9> 폐쇄음 'ㄱ' 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50
<표 III-10> 폐쇄음 'ㄴ' 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52
<표 III-11> 'ㄴ'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53
<표 III-12> 순행적 유음화의 발음 오류	55
<표 III-13> 역행적 유음화의 발음 오류	56

<표 III-14> 학습자의 습득 상황	58
<표 III-15> 규칙 인지 부족의 원인	59
<표 III-16> 규칙 적용을 못하는 이유	61
<표 IV-1>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발음 등급별 목표	65
<표 IV-2>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육 내용	68
<표 IV-3> ‘ㄴ-ㄷ’ 연결에 적용되는 단어들의 비교	70
<표 IV-4> 한국어 자음 강도표	71
<표 IV-5> 한중 발음을 대조하는 예시	79

그림 차례

<그림 I-1> 조사 절차	9
<그림 III-1> 인터뷰 구조	39
<그림 III-2> 1차 자료 정리의 예시	40
<그림 III-3> 2차 자료 정리의 예시	41
<그림 III-4> 3차 자료 정리의 예시	41
<그림 III-5> 초·중·고급 학습자의 평균 오류율	42
<그림 III-6> 각 규칙의 오류율과 규칙 인지도의 비교	44
<그림 IV-1> 자음 강도 설명을 위한 그림	74
<그림 IV-2> 한국어 표기, 발음과 중국어 발음의 대조	79
<그림 IV-3>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단계	8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¹⁾. 지금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절음, 즉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학습자 모국어의 음운 지식을 활용해서 교육하거나, 한국어 음소의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언어 교수법의 변화에 따라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억양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음소 교육이나 억양 교육에 비해 음운 변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정명숙(2003)에서처럼 음운 변동 규칙은 교사의 간단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일단 학습자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만 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운 변동 규칙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지만 표기와 실제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더라도 음운 변동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김형복(2004)에서는 분절음의 연쇄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변동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학습은 듣기를 쉽게 하고 자연스럽게 유창한 발음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많은 언어이다. 특히 음운적으로 대조해 볼 때 음절 구조가 다르고 음운 체계상에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1) 허용 외(2006)에서는 발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발음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둘째, 발음은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일찍 굳어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 과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발음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 굳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발음은 학습 대상 언어의 겉모습이기 때문이다. 발음은 학습하고 있는 외국어의 유창성에 관한 첫인상을 좌우한다.

최대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되어 그 중에는 종성이 7개가 있다. 중국어에도 종성이 있는데 'n'과 'ng'만이 있어 한국어의 종성보다 매우 적다. 한국어의 음절 경계에서 자음과 자음이 연결될 때 매우 복잡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중국어의 음운 변동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는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수가 많고 복잡하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주로 1권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와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도 초급 이후에 발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은 10개의 음운 변동 규칙 중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발음 오류 양상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와 같은 음운적 환경이 있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를 더 어려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의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 오류의 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 오류의 원인을 밝힌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안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은 90년대 이후에 시작하였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 수 있다. 첫 번째는 한

국어 발음 교육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음이나 모음의 분절음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두 번째는 요즘 점점 관심을 받는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의 교육에 관한 연구이고, 세 번째는 음운 변동 규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다. 그 중에는 한·중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는 왕아연(王雅娟, 2009), 장경평(張景平, 2014) 등이 있다. 장경평(2014)은 한·중 음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왕아연(2009)은 한·중 대조 분석을 한 후에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조 분석과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한 연구는 유정(劉靜, 2011), 강수(姜帥, 2013), 사효운(史曉云, 2015) 등이 있다. 유정(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모음 체계, 음절 구조, 그리고 음운 변동을 모두 대조 분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실태를 조사하여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강수(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현상을 대조 분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효운(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중에서 연속되는 두 자음 간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발음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 발음 교육방안을 탐색하였다.

음운 변동 규칙의 습득에 관한 연구는 장향실(2011), 장설교(張雪嬌, 2013), 거찌앤나(葛建楠, 2015) 등이 있다. 장향실(201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교수·학습되는 순서, ② 노출과 사용 빈도, ③ 모국어의 간섭, ④ 규칙의 복잡성이라고 분석하였다. 거찌앤나(2015)에서는 1차-음성음향학적 말하기 산출 실험, 2차-인식적 듣기 청취 실험, 3차-음성음향학적 말하기(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 테스트) 실험을 통해서 북경어권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 습득 양상을 분석하였다.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순서에 대한 연구는 김형복(2004), 장향실(2008), 허유라·박덕유(2012) 등이 있다. 김형복(2004)에서는 한국어의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음운 변동 규칙만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고, 그것의 교수·학습 순서는 기초가 되는 것, 즉 쉽고 단순한 음운 변동 규칙,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을 먼저 가르치도록 정하였다. 두 가지 위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를 '일곱 끝소리 되기→자음 줄이기→소리 이

음→ㅎ 소리 줄이기→된소리 되기→콧소리 되기→거센소리 되기→입천장소리 되기→흐름소리 되기→사잇소리 현상'과 같이 제시하였다. 장향실(2008)에서는 교수·학습이 필요한 음운 규칙을 선정하여 음운 규칙 제시의 원리로 난이도→사용 빈도→일반화 가능성'의 순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원리 적용의 결과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순서는 '평폐쇄음화→연음→장애음 뒤 경음화→격음화→장애음의 비음화→자음군단순화→설측음화→설측음의 비음화→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ㅎ탈락→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구개음화→관형형 '-을' 뒤의 경음화'와 같다. 허유라·박덕유(2012)에서는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한국어 발음 교재와 통합 교재를 모두 분석하였다. 표준발음법, 경희대 교재, 고려대 교재의 제시 내용에 의거해서 초급 교재의 발음 규칙 체계를 '받침 규칙→음절 규칙→동화 규칙→첨가 규칙'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개별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연구보다 많이 미흡하다. 경음화에 관한 연구는 박고영(2010), 우금훤(于錦輝, 2010), 위운(魏云, 2013), 임천우(2013) 등이 있다. 연음 규칙에 관한 연구는 한서인(2011), 왕로(王路, 2014), 탕허난(唐赫男, 2014), 김가람(2015) 등이 있다. 유기음화에 관한 연구는 양순임(2003), 박혜인(2014) 등이 있고 구개음화에 관한 연구는 육효창(2006), 연설(連雪, 2010), 곽예(郭蕊, 2010)가 있으며, 'ㄴ'첨가 에 관한 연구는 조영(趙瑩, 2015)이 있다. 그리고 비음화와 유음화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어 비음화와 유음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이다. 김용렬(2008)을 기점으로 하여 그 뒤로는 양지이(2011), 정권주(鄭君珠, 2012), 양흠(楊鑫, 2013), 정효주(2013), 궁림림(宮林林, 2014), 김설(金雪, 2015), 최효신(2015) 등이 있다.

김용렬(2008)에서는 자음동화를 조음방법동화와 조음위치동화로 나누어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음동화 현상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읽게 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음화와 유음화를 자음동화의 일부로 분석하였으나, 실험 문항에서 비음화와 유음화의 모든 환경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양지이(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후에 비음화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권주(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ㄴ'과 'ㄹ' 연쇄 단어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고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은 중국어는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언어인데 학습자들 모두 그 발음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음운 변동 규칙이 많은 한국어를 발음할 때에도 철자로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양홍(2013)에서는 초·중급 학습자의 자음동화 습득 양상을 연구하였다. 읽기 실험을 통해서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비음동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 선행절의 종성을 탈락시키는 경우, 음절 말 중화만 적용한 경우, 기타로 분석하였다.

정효주(201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에서 비음화의 제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 교재에는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궁림림(201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ㄹ' 연쇄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고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오류 유형에 따라 달리 분석되었는데 주로 모국어의 전이와 음소적 지식과 문법 구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음+ㄹ' 연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설(2015)은 중국인 학습자의 비음화와 유음화의 오류 양상을 조사·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원인을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 구조의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 체계의 차이,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변동의 차이로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에 두었다.

최효선(2015)에서는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동화의 산출과 규칙 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비음동화 산출과 규칙 인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비음동화의 실현 환경에 따라 장애음의 종류, 동화 정도, 단어와 어절 내 형태소 경계 인식에 따라 학습자의 비음동화 산출과 규칙 인지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동화 산출과 규칙 인지가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게 되었다.

이 외에,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나미경(2012), 장우선(2012), 양순임(2013) 등이 있다.

나미경(2012)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리 중심 지도 전략을 세우고, 자음 체계표를 활용하여 점선과 화살표를 통해서 비음화와 유음화의 의미와 원리를 설명하였다. 교수·학습 실재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자음 체계표를 활용한 원리 중심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장우선(2012)에서는 음운론적인 시각과 형태론적인 시각으로 유음화의 본질과 원리를 살피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의 유음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완성형 탐구학습'의 모형으로 고안하였다.

양순임(2013)에서는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변동 규칙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ㄹ'과 관련된 음운 변동의 교육 내용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어중 초성 자리에 쓰인 'ㄹ'과 관련된 음운 변동 규칙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음운 변동 규칙, 특히 개별적인 음운 변동 규칙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비음화와 유음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을 대조·분석한 후에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오류 조사 자료를 구성하는 데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큰 범위의 항목을 설정하여 비음화와 유음화의 모든 음운 환경을 고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류 양상을 분석한 후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전혀 논의하지 않거나 대조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모든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이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오류를 범하는 주체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오류 원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들에 토대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연습-생성'과 같은 교수 모형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사가 음운 변동 규칙을 설명·제시한 후에 연습하는 것은 효과적인지 의심이 간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규칙을 인지하는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해서 모든 음운 환경을 포함한 항목들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조사하고 학습자의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음 오류 조사를 실시한 후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을 교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운 변동 규칙 중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를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의 설계를 위해서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중국인 초·중·고급 학습자 각 5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0개의 음운 변동 규칙²⁾에 적용되는 단어를 각 6개씩, 총 60개 단어로 설문지를 만들고, 학습자에게 모든 단어를 읽어 보게 하고 녹음을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학습자들이 범하는 음운 변동에 대한 발음 오류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유음화, 비음화, ㄴ첨가, 자음군단순화, 연음규칙, 구개음화, 경음화, 유기음화, ㅎ탈락, 평폐쇄음화’와 같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학습자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 하여, 두 규칙의 오류 양상을 세분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둘째,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운 점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모국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모국어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중국어에도 ‘권리 權利 [quan li]’와 ‘중량 重量 [zhong liang]’처럼 한국어의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와 같은 음운적 환경이 있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를 더 어려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범주와 분류를

2) 예비 조사는 한국어의 모든 음운 변동 규칙 중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10개의 규칙, 즉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ㅎ탈락, 자음군단순화, ㄴ첨가, 유기음화, 연음 규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찰하고, 연구대상인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하여 각 항목의 내용과 원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소 배열 제약, 그리고 음운 변동 규칙을 대조·분석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을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을 밝혔다. 또한 중국 대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어(개정판)』(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2008), 『한국어교정』(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 『기초한국어』(연변대 조선-한국학 학원, 2009), 『표준한국어』(북경대 등 25개 대학교 공동 편저, 2002), 총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음운 변동 규칙 제시의 양상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9일에 걸쳐 북경어언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흑룡강대학교의 재학생 총 45명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1학년 1학기에 음운 변동 규칙을 교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피험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과 6급을 통과한 학습자는 고급 수준에, 3급과 4급을 통과한 학습자는 중급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TOPIK 초급 시험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손복희(2012)⁴⁾와 같이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 학생이 받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의하여 대학교 1학년 1학기 학생은 1급, 1학년 2학기 학생은 2급, 즉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초급 학습자로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피험자의 학습 배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과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3) 각 학교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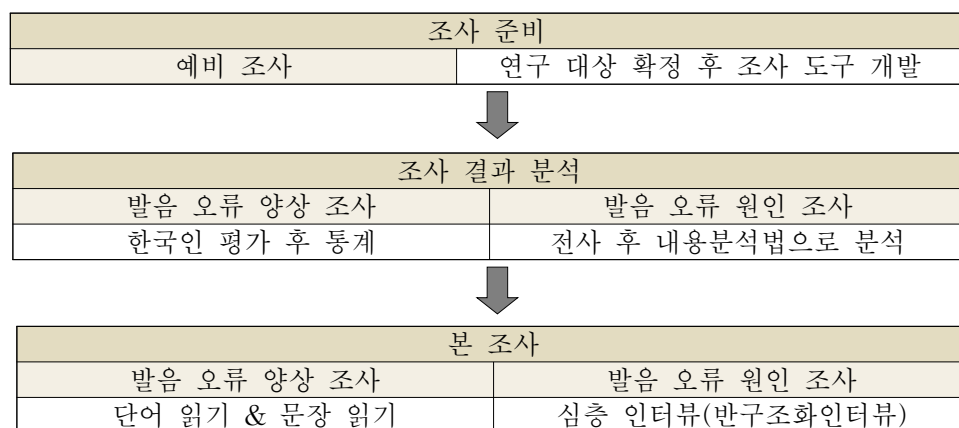
수준 \ 학교	북경어언대	대외경제무역대	흑룡강대	합계
초급	5	4	6	15
중급	7	5	3	15
고급	5	6	4	15
합계	17	15	13	45

4) 손복희(2012)에서는 최은규(2003)와 이정희(2005)가 제시한 한국어 교육기관의 등급과정을 참조해서 150~200시간의 수업을 받는 것을 한 급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학교마다 차이가 조금 있으나 대체적으로 1학년 한 학기 동안 받는 수업 시간은 200시간 전후이다. 따라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1급, 2학기 2급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한국어를 학습했던 학생, 그리고 조선족 학생을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험자들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초·중·고급 각 15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남자 11명, 여자 3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들의 평균 나이는 20.7세이다. 초급 학습자는 101부터 115까지, 중급 학습자는 201부터 215까지, 고급 학습자는 301부터 315까지 번호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크게 발음 오류 양상 조사와 발음 오류 원인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발음 오류 양상 조사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된 9항목에 적용되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학습자에게 읽어보게 하고 녹음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발음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⁵⁾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내용을 녹음한 후에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내용분석방법⁶⁾으로 정리하였다.

조사의 절차는 크게 '조사 준비-본 조사-조사 결과 분석'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I -1> 조사 절차

IV장에서는 III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

5) 우베 플릭(Uwe Flick, 2002; 임은미 외, 2009: 147, 옮김)에서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는 표준화된 인터뷰나 질문지를 이용할 때보다 비교적 개방된 형태로 구성하여 응답자의 자유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한다.

6) 내용분석이란 연구대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문서화 된 것들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록물의 현재적 및 잠재적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양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최명신 외, 2008: 161).

와의 발음 지도 방법을 설계하였다. 발음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발음 지도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수·학습 모형을 '청각적 관찰 단계-규칙 인지 단계-원리 학습 단계-연습 및 산출 단계-정리 단계'와 같이 구성하였다.

II. 비음화와 유음화 교육을 위한 전제

본 장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과 원리를 검토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을 대조·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을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을 밝히고 중국 대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음운 변동 규칙의 개념 및 분류

1.1.1.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기본 개념

음소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 변동을 겪는데 이러한 음소의 변동을 음운 현상(音韻現象)이라고 한다(이진호, 2012: 117). 음운 현상이 형식화되는 것은 음운 규칙이라고 부른다.

음운 현상은 크게 통시적 음운 현상과 공시적 음운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시적 음운 현상은 '똥다>쫄다'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중세 한국어 '똥다'가 현대 한국어 '쫄다'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적 음운 현상은 자음의 '십만→7[심만]'처럼 음소 /ㅅ/이 [ㅍ]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시적 음운 현상은 음운 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시적 음운 현상은 음운 변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음운 현상, 즉 음운 변동만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꽃'이란 낱말은 음성 환경에 따라 [꽃](꽃이), [꼰](꽃도), [꼰](꽃냄새), [꼭](꽃과), [꼰](꽃보다), [꽃](꽃사랑), [꼰](꽃만)⁸⁾ 등으로 달리 발음된다. 이처럼 각각의 음운 환경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구체적 실현체들로부터 추상화되어 동

7) 통시적 음운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로 표시하고 공시적 음운 현상에서는 일어나는 변화를 '→'로 표시한다.

8) '[꼭](꽃과), [꼰](꽃보다), [꽃](꽃사랑), [꼰](꽃만)'은 조음위치동화 현상에 속하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 사이에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꽃/을 이들 각각의 개별적 실현체의 기본형,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representation)이라 하고, 음운 환경에 따라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개별 음성형식을 음성형(音聲形, phonetic representation), 또는 표면형이라고 한다(한재영 외, 2003: 308). 음운 변동은 주로 한 형태소를 구성하는 기저음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 다른 음으로 나타나므로 형태음운변동(morphophonological alteration)이라고도 한다(강옥미, 2003: 445).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 변동을 기저형과 음성형 단계를 설정한 뒤, 기저형에 일련의 규칙을 적용시켜 표면 음성형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 과정을 음운 과정(phonological process)이라 한다(양순임, 2007: 155).⁹⁾ 하나의 음소가 음성학적 차원에서 환경에 따라 다른 음가의 변이음으로 바뀌는 것은 변이음 규칙이라고 하고, 하나의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변동을 규칙화한 것을 변동 규칙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변이음 규칙은 유성음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변동 규칙을 연구하고자 한다.

음운 현상은 일반적으로 변동하는 음소(입력), 변동 이후의 음소(출력), 변동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음운 현상의 일반적인 구조는 'XaY → XbY'와 같다. 'a'는 입력이고, 'b'는 출력, 'X, Y'는 환경, 또는 조건이란 말이다. 하나의 음운 규칙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음운 현상의 일반 구조를 말로 표현하면 'X와 Y 사이에서 a가 b로 바뀐다'와 같다. 또한 음운 규칙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정해 놓은 약속을 표기규약(標記規約, notational convention)이라 한다(배주채, 1996: 152). 배주채(1996)에 의해서 자주 쓰이는 기호¹⁰⁾들의 의미

9) 음운 현상을 더 전문적으로 말할 때는 음운 과정(音韻過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배주채, 2013: 241).

10) 규칙의 표기에 사용되는 기호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둘 이상의 비슷한 규칙을 하나로 합칠 때 유용하다(배주채, 1996: 154).

- | | |
|--|---|
| <p>① 소괄호</p> $\left. \begin{array}{l} a \rightarrow b/c_ \\ a \rightarrow b/cd_ \end{array} \right\} \Rightarrow a \rightarrow b/c(d)_$ | <p>② 중괄호</p> $\left. \begin{array}{l} a \rightarrow b/c_ \\ a \rightarrow b/d_ \end{array} \right\} \Rightarrow a \rightarrow b/\left\{ \begin{array}{l} c \\ d \end{array} \right\}_$ |
| <p>③ 각괄호</p> $\left. \begin{array}{l} a \rightarrow b/d_f \\ a \rightarrow b/cd_ef \end{array} \right\} \Rightarrow a \rightarrow b/\langle c \rangle d \langle e \rangle f$ | <p>④ 거울영상규칙</p> $\left. \begin{array}{l} a \rightarrow b/c_ \\ a \rightarrow b/_c \end{array} \right\} \Rightarrow a \rightarrow b\%c \text{ 또는 } a \rightarrow b//c \text{ 또는 } a \rightarrow b/c$ |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음운 규칙을 표현하는 기호의 의미

기호	의미	
'→'	'바뀐다'의 뜻으로 변동의 방향을 표시함	'→'의 왼쪽: 입력
		'→'의 오른쪽: 출력
'/'의 오른쪽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	
'_'	입력이 변동을 겪는 자리	'X_': X 뒤
		'_X': X 앞
		'X_Y': X와 Y 사이

기호로 음운 규칙을 표기하는 방법도 다시 변화의 환경을 분리한 형식과 변화의 환경을 분리하지 않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십만'을 예로 들면 'ㅅ → ㅁ/_ㅁ'과 같은 변화의 환경을 분리한 형식과 'ㅅㅁ → ㅁㅁ'과 같은 변화 환경을 분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2. 음운 변동 규칙의 분류

음운 변동은 다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음운 현상을 가장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변화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¹¹⁾. 변화 구조에 따라 음운 현상은 대치(代置, substitution), 탈락(脫落, deletion), 첨가(添加, insertion), 축약(縮約, contraction), 도치(倒置, metathesis)와 같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¹²⁾.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구조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음운 현상의 다섯 가지 유형

유형	구조	의미
대치	$a \rightarrow b$	a가 b로 바뀐다.
탈락	$a \rightarrow \emptyset$	a가 없어진다.
첨가	$\emptyset \rightarrow a$	없던 a가 새로 끼어든다.

11) 학교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 방법을 '결과에 따른 분류'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대치'를 '교체', '탈락'을 '삭제', '첨가'를 '삽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축약	$ab \rightarrow c$	a와 b가 합쳐져 c로 바뀐다.
도치	$ab \rightarrow ba$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꾼다.

현대 한국어에는 도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¹³⁾.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음운 현상은 보통 대치,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배주채(2004)에 따라 현대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변화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II-3> 변화 구조의 유형에 따른 음운 변동의 분류

유형	자음에 관한 음운 현상	모음에 관한 음운 현상
대치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구개음화 경음화	모음조화 반모음화
탈락	ㅎ탈락 ㄹ탈락 자음군단순화	ㅡ탈락 ㅣ탈락 ㅏ/ㅑ탈락 w탈락
첨가	ㄴ첨가	y첨가
축약	유기음화	ㄱ축약

강옥미(2003)에 따르면 한 음이 변동은 주변 음과의 유사성에 따라 동화(assimilation)와 이화(dissimilation)로 나눌 수 있다. 두 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한 음이 다른 음의 영향을 받아 인접음과 완전히 같은 음으로 변동하거나 조음 방법, 조음위치나 유무성 중 일부만 같아지는 현상이 동화이다(강옥미, 2003: 449). 주변의 음을 동화시키는 음을 동화주 또는 조건음이라고 하고, 동화주의 영향을 받

13) 이진호(2012)에 의해서 통시적으로 볼 때 한국어에서 도치 현상을 찾을 수 있고, 크게 자음 도치와 모음 도치로 나눌 수 있다. 자음 도치는 '따바리>따래비('ㄸ'과 'ㄹ'의 도치)'처럼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도치 현상이다. 모음 도치는 '뚜껍<떠꿍('우'와 '어'의 도치)'처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도치 현상이다.

아 동화되는 음을 피동화주 또는 변화음이라고 한다. 이화작용은 동화와 반대되어 같은 성격을 가진 두 음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경음화처럼 평음과 평음이 연결될 때 뒤의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은 이화 현상이고 비음화처럼 평음과 비음이 연결될 때 앞의 평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동화 현상이다. 강옥미(2003)가 제시한 음운 변동을 변동하는 음소와 주변 음소의 유사성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 동화, 이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분류

조건	동화	이화
자음과 자음간	폐쇄음비음동화 ㄴ-설측음화 (조음)위치동화	폐쇄음 뒤 경음화 유기음화 ㄹ탈락 ㅎ탈락
모음과 모음간	움라우트 모음조화	반모음첨가 모음축약 ㅡ탈락
자음과 모음간	구개음화 유성음화	ㄴ첨가 ㄷ첨가

음운 변동은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음운적 제약이 있어서 하나의 음소가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소로 변동해야 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국어의 대부분 음운 변동은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분절음과 음절성분이 음절을 구성할 때 작용되는 규칙을 음절구조제약(音節構造制約)이라 부른다(배주채, 2013; 99).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는 음절구조제약 중의 종성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음절과 음절이 연결되어 부적격한 음절연결을 적절한 음절연결로 바꾸는 규칙을 음절연결제약(音節連結制約) 또는 음절배열제약이라고 한다. 비음화, 유음화, 폐쇄음 뒤의 경음화, 유기음화, ㄹ탈락 등은 음절연결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배주채(1996)에 의하면, 음운 현상은 변화의 목적에 따라 강화(strengthening)와 약화(weakening)로 나눌 수 있다. 강화는 약한 소리가 강한 소리로 바뀌는 것인데

약화는 강화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분절음의 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¹⁴⁾. 대체로 자음은 '유기음, 경음>평음>비음, 유음', '폐쇄음, 파열음>마찰음'과 같고 모음은 '저모음>중모음>고모음>반모음'과 같다. 따라서 '작고'처럼 평음 'ㄱ'이 경음 'ㄲ'으로 바뀌는 경음화는 강화이고, '잡는'처럼 폐쇄음 'ㄴ'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나, 유성음화, 반모음화 등은 약화이다. 약화의 극단적인 현상은 탈락 현상이다.

양순임(2007)에 의하면, 음운 변동은 규칙의 적용 범위에 따라 보편적 변동과 한정적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한 음운론적 조건이 충족되어 어떤 형태소에도 적용되는 변동은 보편적 변동,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에서도,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변동은 한정적 변동이라고 한다(양순임, 2007; 167). 따라서 보편적 변동은 한정적 변동보다 음운론적으로 더 투명하고 더 강력한 규칙성을 가진다. '작고→[작꼬]'와 같은 폐쇄음 뒤의 경음화는 형태론적 정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은 보편적 변동이다. 반면 '원론→[월론]', '이원론→[이원논]'과 같은 경우는 음운론적 조건이 같지만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각각 유음화와 비음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 변동에 속한다.

음운의 변동은 필수적이냐 수의적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필수적인 음운 현상이고, 조음위치동화처럼 '잡고'를 또박또박 발음할 때 '[잡꼬]'로 편하게 발음할 때 '[작꼬]'로 발음하는 것은 수의적인 음운 현상이다.

1.2.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과 원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운 변동 규칙 중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를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예비 조사에서 평폐쇄음화, 자음군단순화, 유기음화, ㅎ탈락, 연음,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ㄴ첨가와 같은 10개의 음운 변동 규칙에 적용하는 단어들의 발음에 대해서 조사하

14) 배주채(1996)에 의해서는 강화와 약화 현상은 공시적 음운 현상뿐만 아니라 통시적 음운 현상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15세기 이후에 일어난 'ㄱ>ㄲ'은 강화이고 'ㄲ>ㅇ'은 약화 현상이다.

였다. 조사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비음화와 유음화였다. 학습자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부터 자세히 검토해서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둘째, 외국어 학습하는 데 어려운 점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모국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모국어와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중국어는 ‘권리 權利(quan li)’와 ‘중량 重量(zhong liang)’처럼 한국어의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와 같은 음운적 환경이 있는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를 더 어려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2.1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

(1) 비음화

‘비음화(鼻音化, 콧소리되기)’는 자음 동화 현상 중에서 비음이 아닌 소리가 그 뒤에 실현되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아울러서 이른다(나찬연, 2013: 70). 한국어의 비음화를 크게 폐쇄음의 비음화¹⁵⁾와 유음의 비음화로 나눌 수 있다.

종성인 폐쇄음이 초성인 비음과 연결될 때 음절연결제약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폐쇄음의 비음화이다. 표준발음법¹⁶⁾에서의 폐쇄음의 비음화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ㄸ, ㅌ, ㄴ, ㄷ, ㅌ, ㅎ), ㄹ(ㄹ, ㄹ, ㄹ,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15) ‘ㄱ, ㄷ, ㄹ’이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폐쇄음의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혹은 ‘파열음의 비음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폐쇄음의 비음화’를 취하기로 하였다.

16) <표준 발음법>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해 놓은 규정이다. <표준 발음법>은 1988년에 국가에서 공포한 <표준어 규정>에 속하는 규정으로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어의 어문 규정’이다(나찬연, 2013: 1).

예: 먹는[멍는], 있는[인는], 잡는[잠는] 등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ㅅ, ㅆ, ㅈ, ㅊ, ㅌ, ㅎ', 'ㅍ, ㅅ, ㅈ, ㅊ, ㅌ, ㅎ'은 먼저 평폐쇄음화나 자음군단순화에 적용되어 대표음 'ㄱ, ㄷ, ㅌ'으로 변동한 후에 비음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ㄱ, ㄷ, ㅌ'은 음운 변동의 입력이고, 'ㅇ, ㄴ, ㄹ'은 출력이다. 음운 변동의 환경은 비음 가운데 'ㅇ'을 빼서 'ㄱ, ㄴ' 앞이 된다. 이것은 비음 'ㅇ'이 초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음의 비음화를 기호로 표시하면 'ㄱ→ㅇ/ㄴ, ㄷ, ㄹ', 'ㄷ→ㄴ/ㄴ, ㄷ, ㄹ', 'ㅌ→ㄹ/ㄴ, ㄷ, ㄹ'과 같다.

음절연결제약에 따라서 종성이 비음인 음절 뒤에 초성이 유음 'ㄹ'이 연결될 수 없으므로 뒤 음절의 초성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유음의 비음화는 한자어와 외래어에서만 일어난다(배주채, 2013: 251). 표준발음법에서는 유음의 비음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예: 침략[침낙], 강릉[강능] 등

[붙임] 받침 'ㄱ, ㅌ'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예: 막론[망논], 협력[협낙] 등

제20항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결단력[결단낙], 생산량[생산냥] 등

제19항과 같은 경우는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이다. 음운 변동의 입력이 'ㄹ', 출력이 'ㄴ'이고, 환경은 'ㄱ, ㅇ'뒤이다. 기호로 표시하면 'ㄹ→ㄴ/ㄱ, ㅇ'과 같다.

제19항의 붙임과 같은 경우는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이다. 유음의 비음화와 폐쇄음의 비음화가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두 규칙이 작용하는 순서는 '막론→망논→[망논]'과 일치하다. 먼저 'ㄹ'이 받침 'ㄱ' 뒤에서 유음의 비음화가 실현하여 '망논'으로 된 다음에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폐쇄음의 비음화를 실현해서 결국 [망논]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호로 표시하려면 변화의 환경을 분리한 형식보다 환경을 분리하지 않은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더 쉽기 때문에 'ㄱㄹ→ㅇㄴ, ㅌㄹ→ㄹㄴ'과 같이 표시하고자 한다.

위의 제20항과 같은 경우는 'ㄴ' 뒤 유음의 비음화이다. 'ㄴ' 뒤에 'ㄹ'이 연결될

때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자립적인 한자어 어근의 끝 받침인 'ㄴ' 다음에 'ㄹ'로 시작하는 접사가 이어지면 특이하게 'ㄹ'이 'ㄴ'에 동화되어서 /ㄴㄴ/으로 실현된다(나천연, 2013; 164). 이것을 기호로 표기하면 'ㄹ→ㄴ/ㄴ__'과 같다.

(2) 유음화

유음화는 다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표준발음법에서는 유음의 비음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칼날[칼랄], 실내[실래],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

순행적 유음화는 'ㄴ→ㄹ/ㄹ__'과 같이 표시된다. 순행적 유음화는 고유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역행적 유음화가 고유어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배주채(2013)에 따르면, 그 이유가 'ㄴ'으로 끝난 고유형태소 뒤에 'ㄹ'로 시작하는 고유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ㄴ'뒤에 'ㄹ'이 연결되는 역행적 유음화와 유음의 비음화가 같은 환경을 공유하지만 서로의 음운 변동의 조건은 다르다. 유음의 비음화가 작용되는 한자어는 파생어인데 유음화를 적용하는 한자어는 모두 의존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된 것이다. 역행적 유음화를 기호로 표기하면 'ㄴ→ㄹ/__ㄹ'과 같다.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합쳐서 표시하면 'ㄴ→ㄹ%ㄹ', 또는 'ㄴ→ㄹ//ㄹ', 또는 'ㄴ→ㄹ/ㄹ¹⁷⁾'과 같다.

1.2.2.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논의할 때 '경제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어나 영어 등 언어권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의 경우 '權利(권리)'의 발음은 '[quan li]'와 같다. 한국어처럼 'ㄴ'과 'ㄹ'이 연결되는 경우 유음화가 일어나서 [ㄹㄹ]로 발음되는데 중국어에는 이러한 음절연결제약이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7) 이와 같은 표시 방법은 '거울영상규칙'이다. 각주4)를 참조.

다¹⁸⁾. 또한 영어의 경우에도 이름 'Henry'의 실제 발음은 한글로 표시되면 유음화가 적용되어 [헨리]이어야 하지만 [헨리]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나 영어권의 학습자에게는 낯선 비음화와 유음화를 발음의 '경제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앞에 음운 변동 규칙의 분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음절연결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음절연결계약 중에 종성인 폐쇄음 'ㄱ, ㄷ, ㅂ'이 초성인 비음 'ㄹ, ㄴ'과 연결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폐쇄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종성인 비음 'ㄹ, ㄴ'이 초성인 유음 'ㄷ'과 연결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ㄴ'과 'ㄷ'이 순서와 상관없이 연결될 수 없다고 해서 유음화나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왜 'ㄱ'이 [ㅇ], 'ㄷ'이 [ㄴ], 'ㅂ'이 [ㅁ], 'ㄴ'이 [ㄷ] 또는 'ㄷ'이 [ㄴ]으로 변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음의 강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허용(2002)에서는 두 자음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는 반드시 뒤 자음이 앞 자음보다 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앞 자음 ≤ 뒤 자음'이다. 한국어의 자음의 강도는 '폐쇄음 > 비음 > 유음'과 같다. 또한 하나의 자음이 강하거나 약하게 변동하려면 자신과 같은 조음위치의 음으로 변동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자음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허용 2002 참조).

<표 II-5> 자음표

조음 위치 강도 내림차순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폐쇄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유음		ㄷ	

먼저 폐쇄음과 비음이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18) 중국어의 한어병음 []는 표기상으로 'ㄷ'의 설측음 []와 같이 표기하는데 실제로 'ㄷ'이 초성으로 나타나는 탄설음 [t]와 같이 발음된다.

가. 박물관 → [방물관]
 끝나다 → [끈나다]
 입맛 → [임만]

위의 (가)는 폐쇄음의 비음화에 관한 예이다. 앞 자음인 폐쇄음은 뒤 자음인 비음보다 강하다. 따라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뒤 자음이 앞 자음보다 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앞 자음인 폐쇄음을 한 단계를 낮춰서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 자음인 비음을 한 단계를 높여서 같은 조음 위치의 폐쇄음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음화를 실현한다¹⁹⁾. 따라서 예문 (가)의 'ㄱ, ㄷ (ㅌ)'²⁰⁾, ㅂ'은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음과 유음이 연결되는 경우이다.

나. 음료수 → [음뇨수]
 능력 → [능녁]

(나)와 같은 경우 앞 자음인 비음은 뒤 자음인 유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뒤 자음을 한 단계를 높여서 같은 조음 위치인 비음으로 발음되어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역행동화보다 순행동화가 작용되는 이유는 역행동화가 작용하려면 앞 자음인 비음 'ㄱ, ㅇ'을 한 단계를 낮춰서 같은 조음 위치의 자음으로 변동해야 하는데 <표 II-5>를 보면 'ㄱ, ㅇ'은 아래층에 같은 조음 위치인 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 자음을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문 (나)의 뒤 자음인 'ㄹ'은 비음 [ㄴ]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다. 국립 → [궁닙]
 법률 → [범눌]

예문 (다)와 같은 경우에는 폐쇄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가 모두 일어나는

19) 허용(2002)에서는 이를 한국어는 순행동화보다 역행동화를 취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20) 여기서 대표음을 말하는 것이다.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음의 비음화가 먼저 작용한다. 따라서 'ㄹ'이 앞 자음보다 약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높여서 비음 [ㄴ]으로 변동되어 '국립'과 '법률'은 각각 '국립'과 '법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예문 (가)와 같은 음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폐쇄음 'ㄱ'과 'ㄷ'을 한 단계를 낮춰서 각각 [ㅇ]과 [ㅇ]으로 변동한다.

다음으로 유음화의 원리를 보고자 한다.

라. 원래 → [월래]

마. 설날 → [설랄]

(라)처럼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강한 경우 역행동화를 적용하려면 앞 자음인 비음 'ㄴ'의 강도를 낮추어서 같은 조음 위치인 유음 [ㄹ]로 발음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시 (마)와 같은 경우 앞 자음인 유음은 뒤 자음인 비음보다 약해서 '앞 자음 ≤ 뒤 자음'의 조건에 만족해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데 허용(2004)에 의하면 인간 언어에는 /l/과 /n/이 연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그것은 음운론적 현상이 아니라 음성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즉 /ln/ 연속체를 발음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행적 유음화와 같은 음운적 환경을 가진 'ㄴ' 뒤 'ㄹ'의 비음화를 살펴본다.

바. 의견란 → [의견난], 생산량 → [생산냥]

(바)와 같이 앞 자음 'ㄴ'이 뒤 자음 'ㄹ'보다 강하지 않기 위해서 'ㄴ'을 한 단계를 낮추거나 'ㄹ'을 한 단계를 높이는 두 자기 방법이 있다. 여기서 역행적 동화를 취하지 않고 순행적 동화를 취하는 이유는 음운론을 넘어가서 형태론적 지식도 들어가는 것이다. 한자어 중에 '란, 량, 력, 례, 로, 류' 등은 의존명사처럼 기능하면서 앞 성분의 꾸밈을 받는 의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박숙희, 2013: 134) '의견란'은 '의견을 내는 란'의 뜻으로 의미 면에서 복합어이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한자어의 복합어는 특이하게 순행적 동화가 일어나서 [ㄴㄴ]으로 발음한다.

2. 한·중 음운 대조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언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다르게 만드는 원인, 즉 두 언어의 음절 구조와 음소 배열 제약에 대해서 대조 분석하려고 한다.

2.1. 한·중 음절 구조와 음절 제약에 대한 대조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를 음절(syllable)이라고 한다(허용, 2009: 153). 음절은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배주채, 2013: 95).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初聲, onset)-중성(中聲, nucleus)-종성(終聲, coda)'으로 삼분된다. 초성, 중성, 종성은 음절을 직접 구성하는 음절성분이라고 한다.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만 나타나고 중성에는 모음²¹⁾만 나타난다. 중성의 모음(단순모음)은 핵이라고 하고 한 음절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초성과 종성, 그리고 반모음은 수의적이다. 따라서 종성의 유무에 따라 음절을 개음절(開音節, open syllable)과 폐음절(閉音節, closed syllable)로 나눌 수 있다. '아, 수'처럼 종성이 없는 음절을 개음절이라고 하고 '밥, 국'처럼 종성이 있는 음절을 폐음절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 구조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6> 한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C: 자음, V: 모음, G: 반모음/활음)

개음절					폐음절			
V	GV	VG ²²⁾	CV	CGV	VC	GVC	CVC	CGVC
아	야	의	가	냐	악	약	각	굴

21) 중성을 이중모음 즉 반모음과 단순모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2) 이중모음 '니'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첫소리가 반모음인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고 끝소리가 반모음인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중모음을 크게 상승이중모음(반모음+단순모음)과 하강이중모음(단순모음+반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배주채, 2013: 63). 본 연구에서는 '니'를 [ɰj]로 적어 j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는 것을 취하기로 한다. 따라서 '니'는 한국어에서 유일한 하강이중모음이 된다.

지금까지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이루어져 있는 이분적인 구조이다. 성모는 음절의 앞부분이고, 자음으로 구성된다. 운모는 음절의 뒷부분이고, 다시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로 나눌 수 있다. 운두는 한국어의 반모음과 비슷하며, 운복은 한 음절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대부분의 운미는 모음이며 그 외, 자음으로 구성된 운미 /n/과 /ng/가 있다(黃伯榮 외, 2007: 53). 앤후이 린(2010)에 의해서 중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7> 중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유형	예시	성모	운모		
			운두	운복	운미
V	a			a	
GV	wo		u	o	
VV	ai			a	i
CV	ta	t		a	
VC	an			a	n
CVV	lai	l		a	i
GVV	wai		u	a	i
CVC	lan	l		a	n
GVC	yan		i	a	n
CGV	duo	d	u	o	
CGVV	huai	h	u	a	i
CGVC	qiang	q	i	a	ng

권영미(2008)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대조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8> 한중 음절 구조 대조(권영미, 2008)

한국어 음절 구조	중국어 음절 구조
V	V
GV	VV
*	VVV
CV	CV
CGV	CVV

*	CVVV
VC	VC
GVC	VVC
CVC	CVC
CGVC	CVVC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이다²³⁾. 한재영 외(2003)에 의하면 한국어의 모음(21개)과 자음(19개)수는 중국어(성모 23개, 운모 39개)보다 적지만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 내는 음절수는 중국어 음절수의 4배가량 된다. 이것은 바로 중국어의 종성은 한국어의 종성보다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종성은 7개가 있는데 중국어의 종성은 /n/과 /ng/밖에 없다. 한국어의 대부분 음운 변동은 음절 경계에서 앞 자음과 뒤 자음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데 중국어는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n/과 /ng/밖에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 규칙의 수량은 한국어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어려운 점은 한국어 받침의 발음과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들이다.

한국어의 음절에 대한 제약은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음절구조제약은 분절음이 한 음절을 구성할 때 작용되는 규칙이다. 배주채(2013)에서는²⁴⁾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중성 필수 제약, 초·중·종성 제약, 초중성 연결

23)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이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존재한다. 즉 r-접미사(‘兒’)이다. r-접미사가 첨가될 때 앞 글자와 같이 하나의 음절로 발음된다. 예: ‘花(hua)兒(er)’는 ‘huar’과 같이 발음한다.

24) 배주채(2013)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격	이름	내용	예
음절성분의 필수성	중성 필수 제약	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 밥: ○ ㄷㄷ, ㄱ: ×
분절음의 종류	초성 제약	‘ㅇ’ 이외의 18자음 중 하나여야 한다.	가, 빈: ○ ㄱㅏ : ×
	중성 제약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 중 하나여야 한다.	아, 델: ○ 쇼 : ×
	종성 제약	7자음(ㅂ, ㄷ, ㄱ, ㅁ, ㄴ, ㅇ, ㄹ) 중의 하나여야 한다.	납, 날: ○ 낫, 낱: ×
음절성분의 연결	초중성 연결의 제약	‘ㅈ, ㅉ, ㅊ’ 뒤에 이중모음 ‘ㅊ, ㅋ, ㆁ, ㅍ, ㅌ, ㄱ’과 ‘ㅍ, ㅌ, ㄱ’이 연결될 수 없다.	자, 적: ○ 자, 쫓: ×

의 제약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종성은 7자음 중의 하나여야 한다'는 종성제약은 평폐쇄음화와 자음군단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음절연결제약은 음절과 음절이 연결될 때 작용되는 규칙으로서 주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과 연결될 때 일어난다. 앞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음절연결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배주채(2013)에서는 한국어의 자음 연결이 허용되고 금지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허용되는 경우를 '○'로, 발음을 바꿔야 하는 경우, 즉 금지되는 경우를 '×'로 표시한다.

<표 II-9> 한국어의 자음연결 양상

초성 종성	평음 (ㄱ, ㄷ, ㅂ, ㅅ, ㅈ)	경음 (ㄲ, ㄸ, ㅃ, ㅆ, ㅉ)	유기음 (ㄺ, ㄻ, ㄼ, ㄽ, ㅄ)	ㅎ	ㅁ	ㄴ	ㄹ
폐쇄음 (ㄱ, ㄷ, ㅂ)	×	○/× ²⁵⁾	○	×	×	×	×
비음 (ㄴ, ㅁ, ㅇ)	○	○	○	○	○	○	×
ㄹ	○	○	○	○	○	×	○

위의 폐쇄음의 예로 들어 종성인 폐쇄음이 평음과 연결될 수 없으므로 경음화, 'ㅎ'과 연결될 수 없으므로 유기음화, 'ㅁ, ㄴ, ㄹ'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음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한 음절을 구성하는 성모와 운모의 연결에 대한 음절구조제약²⁶⁾은

25) 폐쇄음 종성과 경음 초성의 연결을 '○/×'로 표시한 것은 'ㄸㅆ'의 경우에만 금지되고 나머지 경우는 허용되는 것이다.

26) 黃伯榮 외(2007)에서 중국어 성모와 운모의 연결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모 운모	i, u, ü가 아니거나 i, u, ü로 시작하지 않는 운모	i나 i로 시작하는 운모	u나 u로 시작하는 운모	ü나 ü로 시작하는 운모
b, p, m	○	○	u만 연결됨	×
f	○	×	u만 연결됨	×
d, t	○	○	○	×
n, l	○	○	○	○

존재하지만 음절연결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어는 전형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고립어(앤후이 린, 2010: 24)이므로 하나의 음절, 즉 하나의 글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음절 경계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절연결제약은 대부분 자음과 자음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데 중국어에는 끝소리로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은 /n/과 /ng/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은 한국어보다 훨씬 적다. 특히 중국어의 자음 운미 /n/과 /ng/의 발음은 한국어의 비음 /ㄴ/과 /ㅇ/과 비슷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절연결제약에 따라 종성 'ㄴ, ㅇ'은 초성인 'ㄹ'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음화와 유음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중국어에는 이와 같은 음절연결제약이 없어서 /n/, /ng/와 성모 /l/와 연결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2.2. 한·중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대조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변화 구조에 따라 나눈 대치, 탈락, 첨가, 축약이다. <표Ⅱ-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치 현상에는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등이 있고, 탈락 현상에는 ㅎ탈락, 자음군단순화 등이 있으며, 첨가 현상과 축약 현상에는 각각 ㄴ첨가와 유기음화 등이 있다. 한국어에는 음운 변동 규칙이 많은 반면 중국어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크게 성조의 변동과 분절음의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성조의 변동은 초분절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절음의 변동에 관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어의 분절음에 대한 음운 변동 규칙은 주로 r-접미사화 즉 '兒化' 변동과 어기조사 '啊'의 음운 변동, 그리고 동화 현상이다.

r-접미사 '兒'는 원래 '작음'이나 '조금'을 의미하는 지소 접미사로 정의되지만 접미사가 첨가된 명사는 그런 의미가 적용되지 않고 단지 익숙한 사물임을 나타낸다(앤후이 린, 2010: 278). 예를 들어 '꽃'이라는 명사 '花([hual])' 뒤에 r-접미사 '

j, q, x	×	○	×	○
g, k, h	○	×	○	×
zh, ch, sh, r	○	×	○	×
z, c, s	○	×	○	×

兒'를 붙이면 '작은 꽃'이 아니라 '꽃'이라는 의미에서 친절한 느낌을 더할 뿐이다. 여기서의 접미사 '兒'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음절(글자) '兒[er]'와 달리 '[hual]'의 발음에서 권설하는 동작을 더해서 '[huar]'로 발음되게 하는 것이다. 즉 '花兒'는 두 음절(글자)인 'hua er'에서 하나의 음절인 '[huar]'로 변동되는 것이다. 변화의 구조에서 보면 r-접미사화는 축약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기조사 '啊'의 음운 변동은 어기조사 '啊(a)'의 발음이 앞의 음절 운미(운미가 없는 경우에 운복)의 발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啊' 앞의 음절이 'u'로 끝나면 'a' 앞에서 'u'가 첨가되어 [wa]로 발음한다. '啊' 앞의 음절이 'n'로 끝나면 'a' 앞에서 'n'가 첨가되어 [na]로 발음한다. 어기조사 '啊'의 음운 변동은 변화의 구조로 보면 첨가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동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어에도 동화 현상이 있다. 중국어의 동화 현상에는 자음의 동화, 모음의 동화, 그리고 성조의 동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의 자음 동화 현상은 모어 화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음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말을 빨리하여 두 음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때 일어난다(이재돈, 2007; 70). 예를 들면 '難勉([nan mian])'은 앞 음절의 운미인 'n'이 성모인 'm'의 영향을 받아 [m]으로 바뀌어 [nam mian]으로 발음된다. 모음의 동화 현상은 북경인들의 발음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兜肚([dou du])'는 '肚[du]'가 앞의 모음 [ou]의 영향을 받아 같은 모음으로 변하여 '[dou dou]'로 발음된다. 중국어의 동화 현상은 변화 구조에서 보면 대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변화 구조에 따라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0> 한·중 음운 변동 규칙의 대조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대치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등	자음의 동화, 모음의 동화
탈락	ㅎ탈락, 자음군단순화 등	
첨가	ㄴ첨가, ㄷ첨가 등	'啊'의 음운 변동
축약	유기음화 등	r-접미사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은 한국어보다 매우 적다. 따

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학습할 때 모국어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음운 변동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3.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교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보통 교재의 내용, 구조, 순서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외국어의 교수 현황을 알아보려면 항상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교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교재에서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제시 내용, 방식, 순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재의 문제점 즉 교수 현황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3.1. 분석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11개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교재를 알아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11> 중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사용하는 학교
『한국어 (개정판)』	북경대학조선문화 연구소	민족출판사	북경어언대, 중앙민족대, 북경대, 대외경제무역대, 칭다오대, 대련외대
『한국어교정』	연세대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회사	상해외대, 중국해양대
『기초한국어』	연변대조선-한국학학원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연변대, 흑룡강대
『표준한국어』	북경대 등 25개 대학교 공동 편저	북경대학출판사	북경외대

위와 같은 4종의 교재 중에 발음과 관련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재는 『한국어(개정판)』 1권과 2권, 『한국어교정』 1권, 『기초한국어』 1권, 『표준한국어』 1권과 2권, 총 6권이며, 본 연구는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술한 4종 교재의 1권은 모두 발음 부분과 본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본문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교재는 발음 부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문법 설명'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개정판)』 1권과 2권, 그리고 『표준한국어』 2권은 본문 부분에서 '어휘' 뒤에 '발음'이라는 부분에서 개별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3.2.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양상

선정된 6권의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제시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방식	
	발음 부분-규칙 설명	본문 부분-단어의 발음
『한국어(개정판)』 1	① 모음의 탈락과 축약, ② 모음조화, ③ 연음화, ④ 경음화, ⑤ 동화, ⑥ 격음화, ⑦ 구개음화, ⑧ 첨가, ⑨탈락	① 연음화, ② 경음화, ③ 동화, ④ 격음화, ⑤ 구개음화, ⑥ 첨가, ⑦ 탈락, ⑧ 모음의 탈락과 축약
『한국어(개정판)』 2		① 연음, ② 동화, ③ 격음화, ④ 경음화

『한국어교정』 1	① 연음, ② 음의 축약, 탈락과 첨가, ③ 경음화, ④ 동화 ²⁷⁾ ⑤ 두음법칙	
『기초한국어』 1	① 연음화, ② 경음화, ③ 격음화, ④ 구개음화 ⑤ 자음 동화	
『표준한국어』 1	① 동화, ② 경음화, ③ 구개음화, ④ 연음, ⑤ 격음화, ⑥ 첨가, ⑦ 탈락	
『표준한국어』 2		① 동화, ② 경음화, ③ 격음화, ④ 연음, ⑤ 탈락, ⑥ 첨가, ⑦ 구개음화

『한국어(개정판)』 1권의 발음 부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은 자음, 모음, 받침 뒤

27) 『한국어교정』에서 구개음화도 동화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서 '語音變化'이라는 과에서 제시되어 있다. 크게 모음의 변화와 자음의 변화로 나누고, 규칙을 기술한 다음에 예시 단어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음운 변동 규칙의 항목은 크게 9개, 세분하면 27개가 한꺼번에 제시되어 있다. 1권과 2권의 본문 부분에서는 각 과의 어휘 부분 뒤에 '發音'이라는 부분에서 해당 과의 본문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에 적용되는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배운 후에 한 과에서 단어를 몇 개씩 제시해서 학습자가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1권의 모든 본문에서 단어의 발음을 제시하는데, 2권은 20과 중에 1과부터 6과까지는 단어의 발음이 있지만 6과 이후에는 단어의 발음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어교정』 1권의 발음 부분은 1과~9과 '자음과 모음', 10과~11과 '받침', 12과~15과 '겹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 변동 규칙은 12과~15과에서 겹받침의 발음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연음 현상', '음의 축약, 탈락과 첨가', '경음화', '동화', 그리고 '두음법칙', 총 5개의 항목이다. '음의 축약, 탈락과 첨가' 규칙이 있는데 주로 모음의 탈락과 축약, 'ㄹ' 탈락, 'ㄴ' 첨가, 'ㅅ' 첨가 현상이다. 노출 빈도가 더 많은 'ㅎ' 탈락이나 'ㅎ' 축약, 즉 격음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칙을 설명한 후에 예시 단어를 제시하고, 과의 뒷부분에는 단어를 읽는 연습 문제가 있다. 발음 부분 뒤에는 발음이나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기초한국어』 1권에도 『한국어(개정판)』 1권처럼 음운 변동 규칙은 자음, 모음, 받침 뒤에서 '語音變化'라는 하나의 과에서 제시되어 있다.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 '자음 동화' 등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 설명과 예시 단어를 제시하고, 뒤에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쓰는 연습 문제와 읽기 연습이 있다. 이 교재에도 발음 부분 뒤에 다시 발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준한국어』 1권의 발음 부분에는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본문 부분에서 과마다 음운 변동 규칙을 조금씩 기술하고 있다. 해당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가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3종의 교재보다 예시 단어가 부족하다. 동일한 규칙에 적용되는 다른 단어가 나타났을 때, 해당 규칙을 다시 제시한다. 다른 교재처럼 모든 규칙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습자에게 학습의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는데, 이 교재와 같은 방식으

로 음운 변동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체계성이 부족해져 학습자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 2권은 총 30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과부터 20과까지는 해당 과의 본문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에 적용되는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20과 이후부터는 발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인 비음화와 유음화가 각 교재마다 어떻게 제시되고 그 순서는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각 음운 변동 규칙을 기호로 표시한다.

<표 II-13> 비음화와 유음화의 제시 양상

교재	『한국어(개정판)』	『한국어교정』	『기초한국어』	『표준한국어』
제시 순서	ㄱ, ㄷ, ㅂ → ㅇ, ㄴ, ㅁ / __ ㄴ, ㅁ	ㄱ, ㄷ, ㅂ → ㅇ, ㄴ, ㅁ / __ ㄴ, ㅁ	ㄱ → ㅇ / __ ㄴ, ㅁ, ㄹ	ㅂ → ㅁ / __ ㄴ, ㅁ, ㄹ
	ㄹ → ㄴ / ㅁ, ㅇ __	ㄹ → ㄴ / ㅁ, ㅇ __	ㄷ → ㄴ / __ ㄴ, ㅁ, ㄹ	ㄱ → ㅇ / __ ㄴ, ㅁ, ㄹ
	ㄴ → ㄹ // ㄹ	ㄴ → ㄹ // ㄹ	ㅂ → ㅁ / __ ㄴ, ㅁ, ㄹ	ㅂ → ㅁ / __ ㄴ, ㅁ, ㄹ
	ㄹ → ㄴ / ㄱ, ㅂ __	ㄹ → ㄴ / ㄱ, ㅂ __	ㄴ → ㄹ // ㄹ ㄹ → ㄴ / ㅁ, ㅇ, ㄱ, ㅂ __	ㄹ → ㄴ / ㅁ, ㅇ __ ㄴ → ㄹ // ㄹ

『한국어(개정판)』과 『한국어교정』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에 관한 항목들의 제시 내용과 제시 순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음화와 유음화가 동일하게 ‘同化現象’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다시 3개의 작은 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①번에는 받침 ‘ㄱ, ㄷ, ㅂ’이 자음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폐쇄음의 비음화가 제시되어 있다. ‘ㄱ, ㄷ, ㅂ’이 각각 다른 음소로 변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음의 비음화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②번에서는 받침 ‘ㅁ, ㅇ’ 뒤의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를 제시한 다음에 ‘ㄴ’과 ‘ㄹ’이 연결될 때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도 같은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③번에서는 받침 ‘ㄱ, ㅂ’ 뒤의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가 제시되어 있다. ②번의 앞부분과 ③번은 모두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인데, 둘을 분리해서 유음화와 섞는 것은 학습자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ㄴ’과 ‘ㄹ’이 연결될 때 ‘판단력’처럼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기초한국어』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같이 '자음 동화'라는 하나의 큰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음 동화는 다시 5개의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폐쇄음의 비음화를 'ㄱ, ㄷ, ㅂ'의 순서로 해서 따로 3가지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와 앞의 2종의 교재와의 공통점은 폐쇄음의 비음화에 대한 제시 순서가 모두 한국어 자음의 배열 순서에 따라 'ㄱ→ㄷ→ㅂ'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나중에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어떤 규칙을 먼저 접하게 될 것인지, 또한 학습자가 어떤 규칙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유음화가 제시되고, 유음화 뒤에 'ㄹ'이 받침 'ㄱ, ㅇ, ㄱ, ㅂ' 뒤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ㄹ'이 'ㄴ' 뒤에 [ㄴ]으로 발음되는 특수한 유음의 비음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표준한국어』에는 비음화 및 유음화와 관련된 내용은 12개의 과에 제시되어 있다. 이 교재는 과마다 해당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가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비음화와 유음화의 세분적인 항목도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단어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입니다'이기 때문에 'ㅂ'이 [ㅁ]으로 발음되는 것이 먼저 제시되어 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ㄱ'이 [ㅇ]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ㄷ'이 [ㄴ]으로 바뀌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ㄱ, ㅇ' 뒤에 유음의 비음화이고, 마지막으로 유음화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ㄱ, ㅂ' 뒤에 유음의 비음화와 'ㄴ' 뒤에 유음의 비음화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3. 음운 변동 규칙 제시의 문제점

중국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제시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음운 변동 규칙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문기에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표준한국어』는 매 본문마다 음운 변동 규칙을 조금씩 기술하고 있지만 더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교재는 자음, 모음, 받침의 발음을 교육하고 나서 바로 음운 변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수많은 자음과 모음의 발

음조차도 외우기가 힘든데, 복잡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은 음운 변동 규칙까지 교육하면 학습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또한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 단어를 많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예시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교재들은 음운 변동 규칙을 기술하기만 하지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이 부족하다. 위에 분석한 4종의 교재에는 음운 변동 규칙은 모두 '어떤 음소가 어떤 음운 환경에서 어떤 음소로 발음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인 학습자에게는 음운 변동 규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내재화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음운 변동 규칙을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에 다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어교정』과 『기초한국어』는 발음 부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제시한 다음 본문 부분에 들어가서는 발음에 관한 내용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개정판)』 1권과 2권의 본문 부분에서는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하여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2권의 6과 이후부터는 발음에 관한 내용이 없다. 『표준한국어』 2권에서는 20과까지 해당 과의 본문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에 적용되는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고, 20과 이후에는 발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 교재에는 음운 변동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들도 발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서 학습자의 오류가 곧바로 수정되지 않으면 화석화될 수도 있다.

넷째, 비음화와 유음화의 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ㄴ'과 'ㄹ'이 연결될 때 모두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만 제시되어 있고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특수한 유음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학습자가 후에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판단력'과 같은 단어를 만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날 것이다. 노출 빈도가 낮은 규칙이지만 학습자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의 오류 양상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발음 오류 양상 및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발음 오류 양상 조사와 발음 오류 원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도구 개발 및 자료 분석 방법

1.1.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 발음의 오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북경어언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흑룡강대학교의 재학생 총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II장에 따라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을 다시 세분하였다. 폐쇄음의 비음화를 다시 'ㄱ'→[ㅇ], 'ㄷ'→[ㄴ], 'ㄸ'→[ㅁ] 세 가지로 나누었다. 유음의 비음화를 다시 'ㄹ', 'ㅇ' 뒤 유음의 비음화와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 그리고 'ㄴ' 뒤의 유음의 비음화로 나누었다. 또한 받침 'ㄱ, ㄷ'과 'ㄹ'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ㄱ'과 'ㄷ'이 각각 다른 음소로 변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ㄱㄹ'→[ㅇㄴ], ㄷㄹ'→[ㅁㄴ]'과 같이 두 개의 항목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유음화는 변동하는 음소가 'ㄴ' 하나밖에 없지만 'ㄴ'과 'ㄹ'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보편적인 인정되는 분류인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III-1> 비음화와 유음화 세분된 내용

규칙	하위분류	표시	예시
비음화	폐쇄음의 비음화	ㄱ→ㅇ/___ㄴ, ㅁ	학년→[향년]
		ㄷ→ㄴ/___ㄴ, ㅁ	끝나다→[끈나다]
		ㄸ→ㅁ/___ㄴ, ㅁ	십만→[심만]
	유음의 비음화	ㄹ→ㄴ/ㅁ, ㅇ__	음료수→[음뇨수]
		ㄱㄹ→ㅇㄴ	국립→[궁립]
		ㄷㄹ→ㅁㄴ	법률→[범률]

		ㄹ→ㄴ/ㄴ__	생산량→[생산냥]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	ㄴ→ㄹ/ㄹ__	설날→[설랄]
	역행적 유음화	ㄴ→ㄹ/__ㄹ	연락→[열락]

각 항목에 맞는 단어를 초급 단어 2개, 중급 단어 2개, 고급 단어 2개씩을 하여 총 6개로 선정하였다. 모든 단어는 표준발음법과 서울대²⁸⁾, 연세대²⁹⁾의 발음 교재에서 추출하였다.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잘 모르더라도 간단하고 자주 접하는 단어의 발음을 아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습득하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의 단어에 대한 인식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초급 어휘, 일반 중급 어휘,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고급 어휘를 선정하여 조사하려고 한다.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이병규 외, 2005)를 참조해서 한국어 교재에서 노출 빈도가 가장 높고 기초적인 어휘를 초급 어휘로 선정하였다. 항목에 맞는 초급 어휘가 없는 경우에는³⁰⁾ 중급 교재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 대신한다. 또한 발음 교재의 단어들 중에 통합 교재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학습자가 잘 모르는 고급 단어를 설문지의 고급 단어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단어 읽기와 문장 읽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의 발음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맞는 6개 단어 중의 3개를 문장으로 만들었다. 선정한 27개의 단어와 27개의 문장을 가나다순으로 재배열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습자에게 모든 단어와 문장을 읽어 보게 하고 녹음하였다. 김은애(2006)에서는 발음 오류를 진단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발화하는 것을 교사가 바로 청취하며 진단하는 면대면 진단과 녹음을 통한 진단, 그리고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한 진단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받지 않는 녹음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 3명이³¹⁾ 따로 녹음을 듣고 발음 오류를 진단하였다. 잠재의

2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2권, 랭지폴러스.

2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30) 보고의 연구 내용 중에 'ㄷ+ㄹ'→[ㄷ+ㄴ]과 'ㄴ' 뒤에 유음의 비음화에 맞는 초급 어휘가 없어서 각각 중급 단어 4개와 고급 단어 2개씩을 선정하였다.

식을 없애기 위해 단어의 목록을 보여 주지 않고 학습자의 녹음을 듣고 들은 발음 대로³²⁾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문장 읽기의 경우 진단자에게 문장을 주고 목표 단어를 빈 칸에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음소를 정확하게 변동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량→[생산량]'처럼 표기대로 발음하여 아무 음소를 변동하지 않거나 '생산량→[생살량]'처럼 잘못 변동하는 경우에는 발음 오류로 처리한다. 하지만 '국립→[궁립]'처럼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음소를 정확하게 변동하는데 개별 음소('ㄱ')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음 오류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과 SPSS로 분석·정리되었다.

1.2. 발음 오류의 원인 조사

발음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조사한 후에 바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응답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조사법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내면 깊이 생각하고 있는 욕구와 태도, 잠재된 동기, 신념, 감정 등을 발견하는 면접조사법이다(최명선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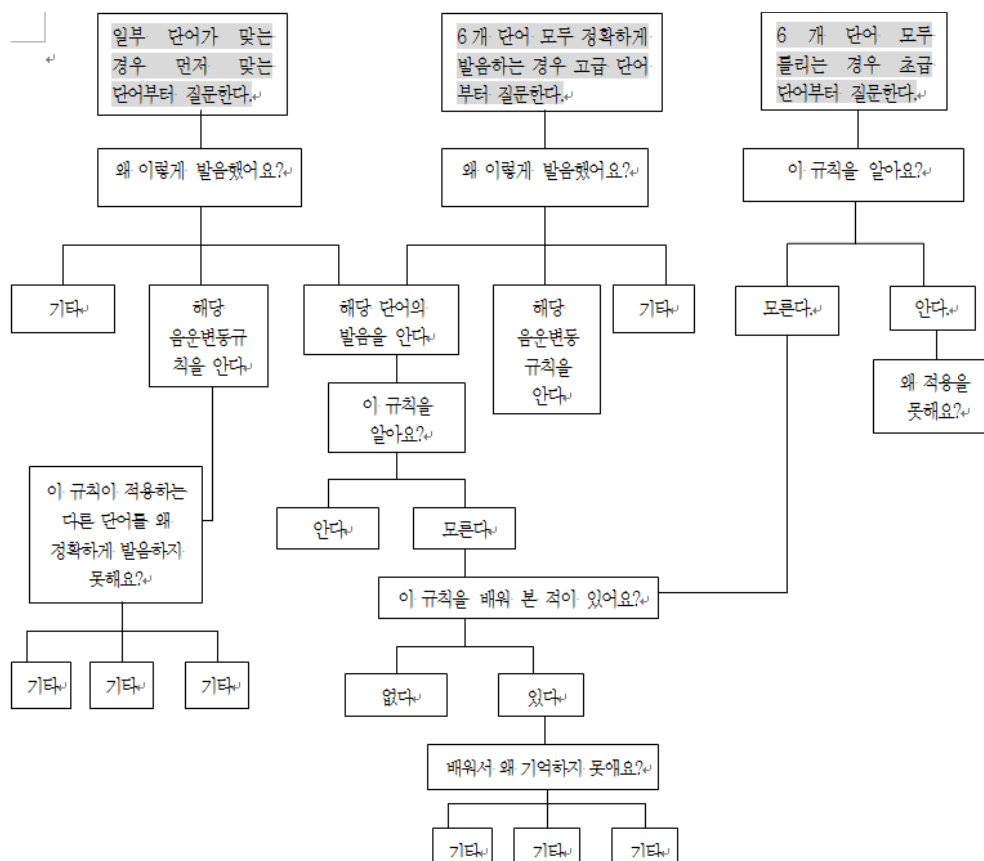
인터뷰는 응답자의 자유도가 높은 개방형 인터뷰 중에 하나인 반구조화(semi-structured)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발음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질문을 진행하였는데, 즉 각 항목의 6개 단어를 모두 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경우와, 다 틀리는 경우, 그리고 일부의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한 항목의 단어들을 모두 정확하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6개 단어 중에서 고급 단어 하나를 뽑아서 피험자에게 질문한다. 한 항목의 단어들을 다

31) 한국인 진단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한국인 진단자	나이	성별	직업
A	46	여	한국어 교사
B	22	여	유학생
C	21	남	유학생

32) '음료수'의 예로 들어 진단자의 답은 '음료수'이면 학습자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결과이고, 진단자의 답은 '음료수'이면 학습자가 표기대로 발음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틀리는 경우에는 6개 단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일부 단어가 맞는 경우에는 먼저 정확하게 발음하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 틀린 단어에 대해서 질문한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 구조를 가지고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답에 따라서 중국어로 질문을 하였다.



<그림 III-1> 인터뷰 구조

위와 같은 내용 외에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학습 경험이나 학습 전략, 또는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도 알아보았다. 심층 인터뷰는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와 사전에 연락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빈 교실이나 기숙사 휴게실에서 각각 20분 정도 진행하였다. 학습자가 편하게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학습자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전사한 후에 내용분석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

용분석 방법으로 피험자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록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내용분석은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내용분석은 객관적·체계적·양적³³⁾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므로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적 방법 중에 하나로 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오류 원인에 대한 항목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1차: 피험자의 모든 전사 내용 중에 왜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뽑아서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학습자의 번호 밑에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의 문항으로 번호를 매긴다. (<그림 III-2> 참조)

A148		207
A		B
148	207	
149	①	我觉得主要是不熟悉这个词(낙농), 然后有时候音变就会忘记。读的时候就会有点困难
150	②	我觉得可能就是第一年学的时候会比较注意这个音变, 然后之后读的少一点, 就会忽略, 如果遇到不认识的词语有的就会想起来, 有的就想不起来了
151	③	(问: 为什么ㄷ→ㄴ比ㄱ→ㅇ掌握的好?) 因为感觉这个(ㄷ→ㄴ)变化还算比较小, ㄱ变成ㅇ变化比较大, 就不太能掌握
152	④	这我们老师之前讲课的时候特殊强调过这个词语(言요수), 就会比较容易记住, 但这个词(합막)对它还不是很熟悉。
153	⑤	我觉得就是潜意识里面有这个变音(ㄷ→ㄴ/ㅇ, ㅇ), 但是词语不熟的话, 就会一部分对, 一部分不对
154	⑥	我个人觉得有ㄷ的时候我都会顿一下, 但是不一定能选出正确的读音, 然后一般的收音, 比如ㅂ。我觉得能更快的判断出来, 我觉得ㄷ不是特别好判断
155	⑦	音变, 用的少一点的, 反应的还是不快。
156	⑧	有时候状态不太好会这样
157	⑨	我觉得还是接触的少, 这个不算是特别常见的音变
158	⑩	(问: 你其他的都读对了, 但是这个刚才读的是을나을, 怎么就没有变成ㄷ)因为我在反应这个词语的时候就断开了
159	⑪	有的时候不太熟悉的词语就会读错, 但是有的也能反应过来
160	⑫	大一学音标开始就慢慢的讲音变, 那个时候一股脑讲很多, 记的不太熟, 有一些用的少的, 就更不熟了, 因为大二时候就不太注意找个了, 可能有的时候读错了, 老师没注意听, 就这样就过去了

<그림 III-2> 1차 자료 정리의 예시

2차: 각 문항 원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로 문항 내용을 줄인다³⁴⁾. 분석 내

33) 최명신 외(2008)에서는 '객관적이란 그 내용을 다룬 사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계적이란 일정한 과학적 절차에 의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용분석은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자료로 전환해서 분석한다'와 같이 설명하였다.

용의 상호배타성을 위해서 한 학습자의 모든 문항을 분석 단위로 정리한 다음에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다. 남은 내용들은 학습자의 번호에 따라 '207-1, 207-2'처럼 다시 순번을 매긴다. (<그림 III-3> 참조)

A138		207-8
	A	B
129		
130	207	
131	207-1	不熟悉的词, 会忘记要音变
132	207-2	一年级之后开始忽略音变
133	207-3	因为ㄷ变成ㅇ变化比较大, 不好理解
134	207-4	ㄷ的音变不是很好判断
135	207-5	用的少一点的音变, 反应不是很快
136	207-6	有时候状态不太好, 会读错
137	207-7	反应这个词语的时候断开了
138	207-8	大一一次集中讲很多音变, 记不熟
139	207-9	读错老师没纠正

<그림 III-3> 2차 자료 정리의 예시

3차: 분석 단위를 '코딩 단위'로 최소화한다. 뜻이 비슷한 분석 단위들을 하나의 코딩 단위로 정리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은 코딩 단위의 항목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그림 III-4>의 B열은 2차에 의한 분석 단위이고, C열은 코딩 단위이다.)

	A	B	C
31	102-7	大一把音变系统讲, 很难记住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2	106-6	音变一下子灌输给我, 还是记不住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3	207-4	大一一次集中讲很多, 记不熟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4	209-7	零基础, 刚学完发音就学音变, 学乱掉了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大一刚学韩语, 一下学完所有音变规则, 难以接受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5	301-2	大一刚学韩语, 单词量少, 无法一下接受大量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6	303-5	例词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大一刚学韩语, 单词量少, 无法一下记住和理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7	309-3	解大量例词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大一刚学韩语, 一下学完所有音变规则, 难以接受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8	310-3	一下学完所有音变规则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39	311-5	大一刚学韩语, 很难一下记住所有音变规则	大一集中学音变效果较差
40	312-7		

<그림 III-4> 3차 자료 정리의 예시

4차: 각 코딩 단위가 나타나는 횟수를 계산한다.

- 34) 학습자 207의 ①번 문항을 예로 들면, 학습자의 대답은 '제 생각에는 이 단어가('낙농')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와 같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읽을 때 음운 변동 규칙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구자가 위의 절차에 따라 전사 자료를 분석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원인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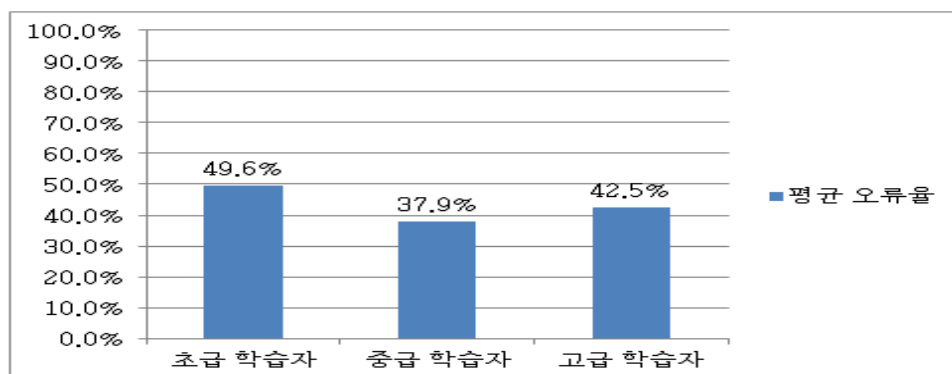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및 분석

본 절에서는 1절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와 발음 오류의 원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1. 발음 오류의 양상 및 분석

한국인 진단자가 학습자의 녹음을 듣고 진단한 후에 연구자가 그 결과를 계산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초·중·고급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평균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I-5> 초·중·고급 학습자의 평균 오류율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급 학습자의 평균 오류율은 각각 49.6%, 37.9%, 42.5%로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의 오류율이 가장 높지만 고급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중급 학습자보다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초·중·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SPSS를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III-2> 초·중급 학습자의 오류율 비교

학습자	n(오류 빈도)	오류율(%)	χ^2	P
중급	307	37.9	22.636	0.000
초급	402	49.6		

<표 III-2 >의 결과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의 오류율이 중급 학습자보다 높았고, $P < 0.05$ 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가 중급에 올라가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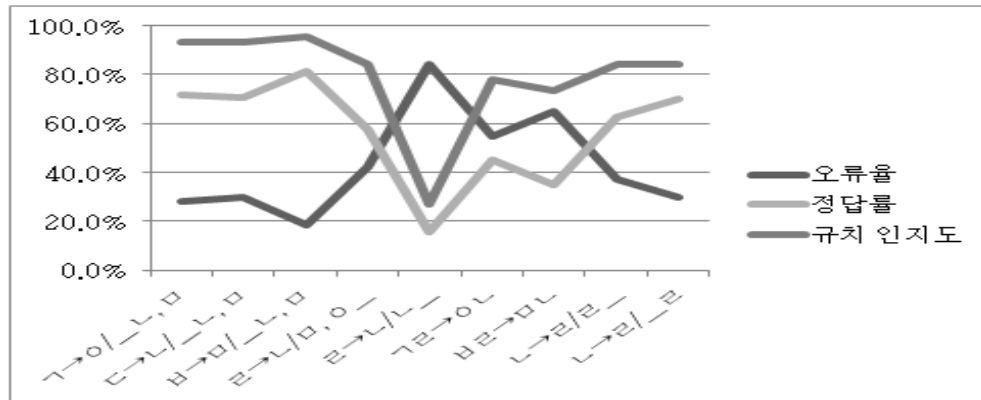
<표 III-3>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비교

학습자	n(오류 빈도)	오류율(%)	χ^2	P
고급	344	42.5	3.574	0.053
중급	307	37.9		

<표 III-3>를 살펴보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차이는 $P > 0.05$ 이기 때문에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급 학습자가 고급에 올라간 후에, 음운 변동 규칙에 있어서 퇴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교재 분석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II장에 서 이미 살펴봤듯이,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1학년 1학기 이후에 발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로 인해 학습자는 발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단어에 나타나는 발음 오류와 문장에 나타나는 오류를 비교한 결과 단어의 오류율은 42.0%, 문장의 오류율은 44.7%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문장의 오류가 단어의 오류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가 문장을 읽을 때 개별 단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봐도 이 단어에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했다하더라도 시간상의 제약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율은 해당 규칙에 대한 인지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습자의 각 규칙에 대한 오류율, 정답률, 그리고 인지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6> 각 규칙의 오류율과 규칙 인지도의 비교

<그림 III-6>를 살펴보면 정답률과 규칙 인지도의 선은 아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학습자의 오류율은 규칙 인지도와 상반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학습자의 오류율과 해당 규칙에 대한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인지도가 높은 규칙이 오류율은 낮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규칙에 대한 인지도는 학습자의 오류율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별로 살펴보면, 비음화와 유음화의 오류율, 그리고 각 하위분류의 오류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III-4> 규칙별의 오류율

규칙	하위 분류	오류율	평균 오류율
비음화	폐쇄음의 비음화	25.4%	46.1%
	유음의 비음화	61.6%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	37.3%	33.7%
	역행적 유음화	30.0%	

위의 표와 같이 비음화의 오류율은 46.1%로 유음화의 오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유음화의 규칙은 단순하고 비음화의 규칙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폐쇄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가장 낮고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오류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9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의 세부적인 항목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1.1. 비음화의 오류

발음 오류 양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음화의 평균 오류율은 46.1%로 나타났고, 그 중에는 폐쇄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25.4%, 유음의 비음화의 오류율은 6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 국어학의 분류에 따라 비음화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운 변동 규칙을 다시 세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이 두 가지 규칙의 발음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폐쇄음의 비음화

폐쇄음의 비음화를 다시 항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ㄱ'→[ㅇ]의 오류율은 28.1%, 'ㄷ'→[ㄴ]의 오류율은 29.6%, 'ㄹ'→[ㄴ]의 오류율은 18.5%로 나타났다.

① ㄱ→ㅇ/ㄴ, ㄷ

'ㄱ'이 [ㅇ]으로 발음되는 항목에 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ㄱ'→[ㅇ]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학년	[학년]	[학년]	93.3%	17.8%
작년	[장년]	[작년]		8.9%
막내	[망내]	[막내]		20.0%
목마른데	[몽마른데]	[목마른데]		35.6%
녹내장	[농내장]	[녹내장]		44.4%
낙농	[낭농]	[낙농]		42.2%

위의 표와 같이 이 항목의 오류 형태는 모두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93.3%의 학습자들은 이 규칙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작년'과 '학년'은 기초적이고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라서 오류율이 낮다. 학습자가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읽을 때 음운 변동 규칙을 생각하지 않아도 익숙한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목마르다'는 '막내'보다 노출 빈도가 조금 높지만 학습자가 이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해서 휴지를 두어서 표기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학습자 103: 這個詞我沒有見過，一時音變反應不過來。(이 단어는('낙농') 처음 봐요. 그래서 음운 변동 규칙까지 생각 못했어요.)

학습자 312: 這個規則我是知道的，但是讀不熟的詞的時候，嘴巴比腦子要快，所以就會讀錯。(이 규칙을 알긴 아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녹내장') 읽을 때 입이 머리보다 빨리 반응해서 오류가 나는 거죠.)

위와 같이 '녹내장'과 '낙농'은 한국어 통합 교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고급 어휘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인식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② ㄷ→ㄴ/_ㄴ, ㄱ

'ㄷ'이 [ㄴ]으로 발음되는 항목에 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6> 'ㄷ'→[ㄴ]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끝나다	[끈나다]	X	93.3%	0%
듣는데	[든는데]	[듣는데]		13.3%
빚나다	[빈나다]	[빔나다]		20%
못난	[몬난]	[몰난]		24.4%
만머느리	[만머느리]	[만머느리]		46.7%
늪엿늪엿	[늪연늪연]	[늪열늪연]		73.3%

학습자들의 'ㄷ'이 [ㄴ]으로 발음되는 규칙에 대한 인식도도 93.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들의 오류 형태도 표기대로 발음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6개의 단어 중에 '끝나다'는 오류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 규칙을 잘 모르는 학습자라도 단어 '끝나다'의 발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연구자: 這個詞你為什麼讀成[ㄴ]呢? (이 단어 왜 [ㄴ]로 발음했어?)

학습자 209: 我也不太清楚。就是大家都這麼讀, 我也這麼讀了。(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모두 [ㄴ]로 발음해서 저도 그렇게 발음하게 됐어요.)

연구자: 那'ㄷ'在 'ㄴ'或者'ㄹ'前面要讀成[ㄴ], 這個規則你知道嗎? (그럼 'ㄷ'이 'ㄴ'이나 'ㄹ' 앞에 나타날 때 으로 바뀌야 하는 규칙을 아세요?)

학습자 209: 不知道。(몰라요.)

위의 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몰라도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의 발음은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듣다', '빛나다', '못나다'도 쉽고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어서 오류율은 비교적으로 낮다.

'만며느리'는 학습자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이 단어를 의미대로 분리해서 '만+며느리'로 발음하여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늪엿늪엿'의 오류율은 다른 단어보다 높게 나왔다. 물론 '늪엿늪엿'은 어렵고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표기가 같은 단어는 발음도 같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這個 'ㄷ'在做收音的時候讀成[ㄷ], 然後它後面有'ㄴ'的話, 它要讀成[ㄴ], 這個規則你知道嗎? ('ㄷ'이 받침으로 나타날 때 [ㄷ]으로 발음하고, 뒤에 'ㄴ'이 있으면 'ㄷ'이 [ㄴ]으로 발음되는 것을 아세요?)

학습자 314: 嗯, 知道。(네, 알아요.)

연구자: 那你剛才讀這個詞的第一個'엿'怎麼沒變成[연]呢? (그런데 왜 첫 번째의 '엿'을 [연]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학습자 314: 啊。。因為這兩個長得一樣就。。就讀成一樣的了。那這個應該讀成'늪연늪연'? (아... 이 둘이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서 같은 소리로 발음했어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하면...'늪연늪연'?)

연구자: 對, '뉘연뉘연'. (네, '[뉘연뉘연]'입니다.)

학습자 314: 啊, 好奇怪。長得一樣的…… (아, 너무 이상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 학습자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 같은 표기이더라도 음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어는 표음문자이지만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교사가 학습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 ㅂ→ㅁ/ㄴ, ㅁ

'ㅂ'이 [ㅁ]으로 발음되는 항목에 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7 > 'ㅂ'→[ㅁ]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입니다	[임니다]	X	95.6%	0%
십만	[심만]	[십만]		13.3%
입맛	[임만]	[입만]		11.1%
앞문	[암문]	[압문]		40.0%
읍내	[음내]	[읍내]		13.3%
겉눈	[검눈]	[겉눈]		33.3%

'ㅂ'이 [ㅁ]으로 발음되는 항목은 9개의 모든 규칙 중에 학습자의 인식도(95.6%)가 가장 높고 오류율(18.5%)이 가장 낮았다. 오류 형태도 앞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6개 단어의 오류율은 어휘의 등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기도 하고 사용 빈도도 높은 '입니다'는 오류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또 '앞문'은 고급 어휘가 아니지만 오류율은 40.0%로 높게 나왔다.

학습자 105: 我覺得這樣讀更舒服。 (이렇게 발음하는 것([압-문])은 더 편한 것 같아요.)

학습자 211: 因爲'[압-문]'能辨認出是前門, 讀 '[암문]'的話人家可能听不出

來是什麼意思，我就故意這樣讀了。（‘[압-문]’으로 발음하면 듣는 사람이 ‘앞의 문’이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문]’으로 발음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로 그렇게 발음했어요.）

학습자 105와 같은 경우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거나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어감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 211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음의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를 다시 항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42.2%, 폐쇄음 ‘ㄱ’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54.8%, 폐쇄음 ‘ㄷ’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65.2%, ‘ㄴ’ 뒤 유음의 비음화의 오류율은 84.1%로 나타났다.

①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84.4%	22.2%
음력	[음력]	[음력]		31.1%
염려하다	[염려하다]	[염려하다]		46.7%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42.2%
함락	[함락]	[함락]		53.3%
행렬	[행렬]	[행렬]		57.8%

통계 결과에 따르면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42.2%로 나타났다.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 형태도 역시 ‘음료수→[음료수], 등록금→[등록금]’처럼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이 규칙을 안다고 대답하는 학습자는 84.4%인 것을 감안하면, 오류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모국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학습자 211: 因為中文里面那個飲料水的料讀成‘l’, 習慣了。(왜냐하면 중국어의 ‘飲料水’는 ‘料[liao]’로 발음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음하게 됐어요.)

학습자 305: 可能是中文的習慣問題。‘登陸’, [등-록]. 這都應該是習慣問題。嗯, ‘念慮’, [염-려], 是‘[염녀하다]’嗎? 我都是讀的[염려하다]。(중국어의 습관인 것 같아요. ‘登錄[deng lu]’잖아요. 그래서 [등-록]. 이것들은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응응. ‘念慮[nian lü]’, [염-려] ‘[염녀하다]’예요? 저는 다 [염려하다]로 발음했어요.

위의 학습자들은 모두 한자어가 대응하는 중국어 한자 발음 습관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중국어에도 ‘登錄[deng lu]’처럼 ‘ng’와 ‘l’가 연결되는 음운 환경이 있지만 한국어와 같은 비음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습관 때문에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휘 등급이나 노출 빈도에 따라 오류율이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출 빈도가 높은 기초 어휘인 ‘음료수’와 ‘음력’은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노출 빈도가 비교적 낮은 중급 어휘인 ‘등록금’과 ‘염려하다’가 각각 42.2%와 46.7%의 오류율을 보였고, 고급 어휘인 ‘행렬’과 ‘함락’의 오류율은 각각 53.3%와 5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② 폐쇄음 ‘ㄱ’ 뒤 유음의 비음화

폐쇄음 ‘ㄱ’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9> 폐쇄음 ‘ㄱ’ 뒤 유음의 비음화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국립	[궁닙]	[국립][궁립][국닙]	77.8%	42.2%
대학로	[대향노]	[대학로][대향로]		48.9%
폭력	[풍녁]	[폭력][풍력][]		57.8%
기억력	[기영녁]	[기억력][기영력]		62.2%
목련	[몽년]	[목련][몽련][목년]		57.8%
박력	[방녁]	[박력][박녁]		60.0%

'ㄱㄹ→ㅇ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77.8%)는 폐쇄음 'ㄱ'의 비음화(93.3%)와 'ㄱ, ㅇ'뒤 유음의 비음화(84.4%)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두 규칙을 따르는 잘 알아도 같이 적용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학습자 103: 我知道這個詞不只有一个音變, 但我不知道該怎么拼。(이 단어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하나이상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 210: 前面這個規則我知道, 后面這個規則我也知道, 但它們兩個在一起的時候要怎么變。。。我不知道它倆都要變。(앞의 규칙을 알아요. 뒤의 규칙도 알긴 하는데, 둘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변동해야 하는지를.....둘다 변동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위의 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규칙을 능숙하게 적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규칙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볼 수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적용되는 단어들의 오류 형태는 두 규칙을 다 적용하지 못하거나 하나의 규칙만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과 '[궁립]'처럼 폐쇄음의 비음화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 108: 我就光想着前面那个要變成'[ㅇ]'了, 后面的沒想到。(앞의 것은 '[ㅇ]'으로 변동해야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뒤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학습자 314: 就是看見這個詞的時候覺得讀 '[궁립]'比較順, 然后讀'[립]'的時候有点拗口還是什麼。(이 단어('국립')를 봤을 때 '[궁립]'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립]'으로 발음하는 것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위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폐쇄음의 비음화를 유음의 비음화보다 더 잘 습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규칙에 대한 인식도와 두 규칙의 오류율³⁵⁾에서도 엿볼 수 있다.

35) 폐쇄음의 비음화(ㄱ→ㅇ/ㄴ, ㄱ)의 오류율은 28.1%이고, 'ㄱ, ㅇ'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율은 42.2%이다.

그리고 각 단어의 오류율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보면 이 항목의 오류는 어휘의 등급과 상관없는 것이다.

③ 폐쇄음 'ㄷ' 뒤 유음의 비음화

폐쇄음 'ㄷ' 뒤 유음의 비음화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폐쇄음 'ㄷ' 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합리적	[함니적]	[합리적][합리적][함니적]	73.3%	62.2%
수업료	[수업료]	[수업료][수업료]		57.8%
법률	[범률]	[법률][범률][범률]		53.3%
컵라면	[کم라면]	[کم라면]		84.4%
답례	[담례]	[답례][담례]		77.8%
섭리	[섬니]	[섭리][섬리]		55.6%

이 항목의 오류 형태도 'ㄱㄹ→ㅇㄴ'과 마찬가지로 표기대로 발음되거나 하나의 규칙만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학습자들이 'ㄷ'의 비음화에 대한 인식도가 'ㄱ'의 비음화의 인식도보다 높고 전자의 오류율이 후자의 오류율보다 낮은 반면에 'ㄷㄹ→ㅇㄴ'에 대한 인식도는 'ㄱㄹ→ㅇㄴ'보다 낮고 오류율은 높은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ㄷㄹ→ㅇㄴ'에 적용되는 어휘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학습자 306: 這個規則我本來知道, 後來忘了。這種單詞我好像很少讀。(이 규칙을 원래 아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종류의 단어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위의 응답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기초 어휘는 노출 빈도가 높아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만 'ㄷㄹ→ㅇㄴ'이 적용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ㄷㄹ→ㅇㄴ'에 대한 인식도가 'ㄱㄹ→ㅇㄴ'보다 낮고 오류율도 높은 것이다.

그리고 'ㄷ'과 'ㄹ'이 연결되는 단어 중에 '컵라면'의 오류율은 84.4%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 309: 這個詞后面的‘拉面’是認識的詞，所以就直接讀了‘[라면]’。(이 단어 뒷부분의 ‘라면’은 아는 단어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라면]’으로 읽었어요.)

학습자 213: 這個平常總說‘라면, 라면’,就沒想前面。(이것은 평소에 자주 ‘라면, 라면’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라면]으로 발음하게 됐어요. 앞의 단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학습자는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나는 경우에 음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의 발음 그대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음운 변동 전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ㄴ’뒤 유음의 비음화

‘ㄴ’뒤 유음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 ‘ㄴ’뒤 유음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입원료	[이뵤뇨]	[이뵤료][이뵤료]	26.7%	82.2%
의견란	[의견난]	[의견란][의결란]		95.6%
생산량	[생산냥]	[생산량][생살량]		82.2%
정신력	[정신녁]	[정신력][정실력]		77.8%
임진란	[임진난]	[임진란][임질란]		91.1%
상견례	[상견네]	[상견례][상결례]		91.1%

‘ㄴ’ 뒤의 유음의 비음화가 모든 항목들 중에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6개의 단어들의 오류율은 최저가 82.2%(‘입원료, 생산량’)이고, 최고는 95.6%(‘의견란’)까지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오류 형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견란→[의견란]’처럼 아무 음소를 변동시키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의견란→[의결란]’처럼 유음화로 인식해서 ‘ㄴ’을 [ㄹ]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는 26.7%로 다른 규칙들보다 많이 낮다. 교재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교재에서는 이 항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이 규칙을 배워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ㄴ' 뒤 유음의 비음화에 적용되는 어휘들의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학습자 213: 剛開始的時候老師講過, 后來這種情況出現的几率太小了, 然后就慢慢忘了。(처음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적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아래의 응답과 같이 유음화와 헷갈리기 때문이다.

학습자 308: 我知道'ㄹ'和'ㄴ'在一起要音變, 但我不知道什麼時候要變成'ㄹ', 什麼時候要變成'ㄴ'。('ㄹ'과 'ㄴ'이 연결될 때 반드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긴한데 어떤 경우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 205: 我以爲它('의견란')和 '[실랑](신랑)'是一種情況, 所以就把它'ㄴ'變成'[ㄹ]'了。(저는 이것('의견란')이 '[실랑](신랑)'과 같은 경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ㄴ'을 '[ㄹ]'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ㄴ' 뒤 유음의 비음화에 적용되는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이므로 학습자가 한자의 중국어 발음 습관대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다.

2.1.2. 유음화의 오류

발음 오류 양상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음화의 평균 오류율은 33.7%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순행적 유음화 오류율은 37.3%, 역행적 유음화 오류율은 30.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³⁶⁾. 이것은 이 두 항목 자체가 비슷하기도 하고 교재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ㄹ'과 'ㄴ'이 연결될 때 순서와 상관없

36)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하는 단어들 중에 '들나물'의 오류율은 66.7%로 높는데 비해 다른 5개의 단어들의 평균 오류율은 31.6%로 역행적 유음화의 오류율(30.0%)과 아주 비슷하다.

이 모두 'ㄴ'을 [ㄹ]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본다.

(1) 순행적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12> 순행적 유음화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설날	[설랴]	[설날]	84.4%	22.2%
일 년	[일련]	[일년]		24.4%
실내	[실래]	[실내]		37.8%
잘난	[잘란]	[잘난]		37.8%
칼날	[칼랄]	[칼날]		35.6%
들나물	[들라물]	[들나물]		66.7%

위의 표와 같이 순행적 유음화의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이 항목에 대한 인식도는 84.4%이었다.

순행적 유음화의 오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자어인 '실내'와 '일 년'은 중국어 발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학습자 313: '室內', '內'嘛, '室內', '[실내]'. ('室內shi nei', '內nei'잖아요. 그래서 '室內shi nei'는 계속 '[실내]'로 발음했어요.)

한자어 '실내'의 '내'는 대응하는 중국어 발음 '內[nei]'와 비슷하고 '일 년'의 '년'도 대응하는 중국어의 '年[nian]'과 비슷해서 학습자가 습관처럼 [ㄴ]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출 빈도가 높은 기초 어휘인 '설날(22.2%)'은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단어들도 모두 30%정도의 오류율이 나타났는데 '들나물'만 무려 66.7%의 오류율이 나타났다.

학습자 102: 我也不清楚是爲什么, 可能因爲這個詞是三個字的, 然后, 就不太

容易套規則，可能還是不牢固。（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단어가 3음절 글자라서 규칙을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일거예요. 아니면 아마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구요.)

학습자 207: 因為我在反應這個詞語的時候就斷開了……（제가 이 단어를 읽을 때 끊어 읽어서…… ）

위의 응답을 보면, 학습자들이 단어 구조보다는 음운 변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 음운 변동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2) 역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III-13 > 역행적 유음화의 발음 오류

해당단어	표준발음	오류형태	규칙 인식도	오류율
연락	[열락]	[연락]	84.4%	24.4%
편리	[펼리]	[편리]		26.7%
신랑	[실랑]	[신랑][신낭]		35.6%
곤란	[골란]	[곤란][곤난]		26.7%
민란	[밀란]	[민란][민난]		31.1%
전래	[절래]	[전래]		35.6%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하는 6개 단어의 오류율도 평균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오류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가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오류도 있었다. 이것은 중국어의 영향이나 ‘ㄹ’의 비음화와 헛갈려서 생긴 오류이다.

학습자 106: 我就想着讀了那么多‘ㄹ’了，也該出一個‘ㄴ’了吧。后一種情況還不是很清楚。（‘ㄹ’로 발음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 ‘ㄴ’으로 발음되는 것도 한번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ㄴ’으로 발음했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ㄴ’으로 발음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 109: 我不太清楚。這兩個在一起到底是變'ㄹ'還是'ㄴ'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둘('ㄹ'과 'ㄴ')이 만날 때 모두 'ㄴ'으로 변하는 거예요? 'ㄹ'로 변하는 거예요?)

위와 같이 역행적 유음화의 음운 환경이 'ㄴ' 뒤의 유음의 비음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헷갈릴 수 있다.

대부분의 오류는 역시 순행적 유음화와 같이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2. 발음 오류의 원인 및 분석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는 이론적인 고찰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습자가 실제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 전략이나 교육적인 문제가 있는지의 질적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음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앞의 인터뷰 자료의 분석 절차에 따라서 1차(피험자의 모든 대답 중에 왜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뽑는다) 자료 정리를 하고 나서 총 278개의 항목을 얻었다. 2차 자료 정리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문항을 각각 작은 분석 단위로 나누거나 한 학습자의 중복된 분석 단위를 제외하여 총 204개의 분석 단위를 얻었다. 3차 자료 정리에는 비슷한 분석 단위를 하나의 코딩 단위로 정리하여 총 157개로 만들었다. 4차는 각 코딩 단위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규칙 인지'와 '규칙 사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규칙 인지'가 잘 된다는 것은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이해하여 음운 변동 규칙이 어떤 음운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규칙 사용'이 잘 된다는 것은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라도 음운 변동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습득 상황은 <표 III-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14> 학습자의 습득 상황

	A	B	C	D
규칙 인식	O	O	X	X
규칙 사용	O	X	O	X

상황A는 음운 변동 규칙 교육의 이상적인 경우이다. 학습자의 규칙 인지와 규칙 사용이 모두 잘 된 것이다. 학습자가 규칙의 내용과 이 규칙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알고, 모르는 단어에도 해당 음운 변동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황C는 조금 어휘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연구자: 這個爲什麼讀成‘[임니다]’? (이것은 왜 ‘[임니다]’로 발음했어요?)

학습자 101: 這個，從我們剛入學的時候老師就教，就是教‘저는 某某입니다’的時候就告訴我們這個讀‘[임니다]’，后來也一直這麼讀的。(이것은 우리가 처음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것은 ‘[임니다]’로 발음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연구자: 那你知不知道這個‘ㄷ’在‘ㄴ’前面要變成‘[ㄹ]’? (그럼 ‘ㄷ’이 ‘ㄴ’ 앞에 나타날 때 [ㄹ]으로 바뀌어야 하는 규칙을 아세요?)

학습자 101: 這個老師好像講過，我記不清了。(그건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학습자 101와 같은 경우 음운 변동 규칙을 몰라도 아주 기초적이고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의 발음은 아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의 발음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것, 즉 규칙 사용이 안 되는 상황B와 상황D를 중심으로 탐구하려고 한다. 상황D는 규칙 인지를 못해서 규칙 사용을 못하는 경우이고, 상황B는 규칙을 인지해도 적용을 못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157개의 코딩 단위를 다시 규칙 인지를 못하는 이유와 규칙 적용을 못하는 이유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1. 규칙 인지를 못하는 원인

모든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음운 변동 규칙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 절차에 따라서 정리하면 학습자가 규칙을 인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은 <표 III-15>과 같다.

<표 III-15> 규칙 인지 부족의 원인

코딩 단위	횟수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이 복잡하고 어렵다.	18
1학년 1학기에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한꺼번에 배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	15
노출 빈도가 낮은 규칙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12
교사가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	6
개인 노력이 부족하다.	6
교사가 강조하지 않는다.	5
수업 진도가 빠르다.	4
교수 방법이 단일하다.	4

학습자가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복잡성 때문이다.

학습자 304: 韓語的音變太多了, 記不太清楚。(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이 너무 많아요.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학습자 201: 音變很多, 又很複雜, 會記混。(음운 변동 규칙이 많고 복잡해서 많이 헷갈려요.)

학습자 106: 那個時候講這些音變, 什麼碰到什麼變成什麼, 各幾個, 很多, 感覺頭都快大了。(음운 변동 규칙을 배웠을 때 어떤 것이 어떤 것과 만날 때 어떤 것으로 변한다는 것은 각각 몇 개의 경우 있대요.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위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은 양도 많고 비슷한 규칙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모든 규칙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학습자의 대답에서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교육 내용의 설계에 있어서 1학년 1학기에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한꺼번에 배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답이 많았다.

학습자 209: 因為當時都是零基础, 剛學完發音就學音變, 就學亂掉了。(그때는 입문기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발음을 배우고 나서 바로 음운 변동 규칙을 배우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학습자 102: 大一一次性把所有音變灌輸給我們, 記住的可能性不大。(1학년 때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한꺼번에 가르쳐서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해서도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가 자음, 모음, 받침의 발음을 교육한 후에 바로 음운 변동 규칙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교재 분석의 결과가 옳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가 노출 빈도가 낮은 규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자 213: 剛開始的時候老師強調過, 但後來它出現的几率太小了, 然后就忘了, 剛才我讀的時候也在猶豫, 到底讀哪個。(처음에 선생님은 ('ㄴ' 뒤 유음의 비음화)를 강조했는데 이 규칙이 출현하는 확률이 너무 낮아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까 읽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주저했는데요.)

학습자 109: 這個比較不熟, 見得比較少。(이 규칙('ㄴㄹ'→ㄹ)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잘 익숙하지 않아요.)

위의 응답과 같이 'ㄴ' 뒤 유음의 비음화나 'ㄴㄹ' 뒤 유음의 비음화는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낮아서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교사가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대답도 나왔다.

학습자 314: 老師沒有講具體的原因, 就是它為什麼要音變。(선생님이 이 음운 변동 규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습자 107: 剛開始學的時候講的比較淺顯, 不大明白, 只是背那個規則, 挺累

的。(음운 변동 규칙을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힘들었어요.)

위의 응답을 통해, 성인 학습자는 현상보다는 언어의 원리까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재 분석 결과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교재에는 음운 변동 규칙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바로 단어 연습을 한다. 음운 변동 규칙의 원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의 강조가 부족, 수업 진도가 빠르거나 교수 방법이 단일하다 등 교육적 원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 학습자의 노력의 부족 등 개인적 원인도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 인지를 못하는 원인은 주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복잡성과 교육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2.2.2. 규칙 사용을 못하는 원인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습득하면 처음에 보는 단어라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기초 단어만큼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운 변동 규칙이 내재화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알아도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 규칙 적용을 못하는 이유

코딩 단위	횟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타나면 금방 반응하지 못한다.	21
음운 변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14
중국어 발음의 영향	12
오류가 교정을 받지 않아서 화석화된다.	10
단어를 끊어서 발음한다.	10
발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7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발음하면 불편하다.	5
수업 연습이 부족하다.	4
실수 등 기타 원인	4

규칙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규칙 인지를 못하는 이유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의 대답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타나면 금방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303: 就是生一点的詞, 看到這個詞就是想這個詞是什麼意思, 就來不及想它是什麼音變要怎麼讀了。(제가 잘 모르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생각하게 돼서 음운 변동 규칙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학습자 114: 不太熟的詞就不是很好往里套音變, 可能我音變還是掌握的不太好。(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적용하지 못해요. 제가 아직 음운 변동 규칙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학습자 202: 這個詞我不太熟, 而且韓語的音變太多了, 我一時之間想不起來要套那個音變。(이 단어를 잘 몰라서요. 그리고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이 너무 많아서 금방 어느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학습자가 익숙한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익숙한 단어는 발음이 이미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는 발음이 익숙지 않아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반응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봐도 정확하고 빠르게 '어떤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위의 학습자의 경우와 달리 어떤 학습자는 익숙한 단어를 봐도 '음운 변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습자 111: 讀的時候忘了要音變了。(읽을 때 음운 변동을 해야 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학습자 104: 就是看到一個詞, 腦子里也不會有要音變的那個想法。(한 단어를 보도 머릿속에 음운 변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학습자 111와 학습자 104의 경우 아예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

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의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학습자의 대답 중에는 모국어의 영향이 많이 나왔다.

학습자 313: ‘室內’, ‘內’嘛, ‘室內’, ‘[실내]’. (‘室內shi nei’, ‘內nei’잖아요. 그래서 ‘室內shi nei’는 계속 ‘[실내]’로 발음했어요.)

학습자 305: 可能是中文的習慣問題。‘登陸’, [등-륙]. 這都應該是習慣問題。嗯, ‘念慮’, [염-려], 是‘[염녀하다]’嗎? 我都是讀的[염려하다]. (중국어의 습관인 것 같아요. ‘登錄[deng lu]’잖아요. 그래서 [등-륙]. 이것들은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응응. ‘念慮[nian lü]’, [염-려] ‘[염녀하다]’예요? 저는 다 [염려하다]로 발음했어요.

학습자 211: 還有就是我是南方來的, ‘ㄹ’和‘ㄴ’本來就分不太清。(그리고 저는 남방에서 왔어요. ‘ㄹ’과 ‘ㄴ’의 발음을 원래 잘 구분하지 못해요.)

II장의 대조 분석 내용과 같이 유음화나 유음의 비음화와 같은 경우 중국어는 한국어와 같은 음운적 환경이 있지만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한자어의 중국 발음에 따라 습관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학습자 211 경우에 따르면, 중국 남방의 학습자들은 자기 방언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가 교정을 받지 않아서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 207: 可能有時候讀錯了, 老師也沒注意听, 就這麼過去了, 后來就一直這樣讀了。(아마 오류가 나타났을 때 선생님이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발음하게 됐어요.)

학습자 210: 老師不太注重改發音, 就讀習慣了。(선생님이 발음 교정에 중점을 두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읽어보니 그냥 습관이 됐어요.)

위의 경우 교사가 발음에 대해 신경을 안 써 학습자의 오류를 즉시 교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오류가 화석화된 경우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대답 중에 단어를 끊어서 발음한다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 211: 因爲‘[압-문]’能辨認出是前門, 讀 ‘[암문]’的話人家可能聽不出來是什麼意思, 我就故意這樣讀了。(‘[압-문]’으로 발음하면 듣는 사람이 ‘앞의 문’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문]’으로 발음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로 그렇게 발음했어요.)

학습자 309: 這個詞后面的‘拉面’是認識的詞, 所以就直接讀了‘[라면]’。(이 단어 뒷부분의 ‘라면’은 아는 단어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라면]’으로 읽었어요.)

위와 같이 학습자는 해당 음운 변동 규칙이 모든 음운 환경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음운 변동 의식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발음하는 게 불편하다는 대답도 있다.

학습자 303: 就是覺得讀‘[함리]’更順口。(그냥 ‘함리’로 발음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학습자 314: 覺得讀‘[궁립]’比較好, 讀‘립’有点拗口。(‘[궁립]’으로 발음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립]’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요.)

위의 응답자는 모두 불편하다고 대답하지만 이것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학습자 모두 장애음의 비음화는 적용하지만 유음의 비음화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ㄹ’로 발음하는 것은 중국어의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마 학습자가 발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모국어의 영향’이라고 생각지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위와 같은 원인 외에도 수업 연습이 부족한 교육적인 원인과 실수 등 기타 원인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주로 음운 변동 규칙에 반응하는 시간의 부족, 음운 변동에 대한 의식미약, 모국어의 영향, 교육적 문제 등이 있다.

IV.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설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지도 방안을 설계한다.

1.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목표

민현식(200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goals, aim, purpose)과 목표(objectives)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목적은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는 구체적, 계량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숙희(2013)에서는 '발음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목표어의 말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음운과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발화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박숙희, 2013: 15). 여기서 음운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모음, 자음, 받침을 제 음가대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며 운율이라는 것은 발화의 의미 단위인 문장의 억양을 한국인다운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의 발음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음절이 연결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될 때 개별 음운이 표기와 다르게 변동되는 현상, 즉 음운 변동 규칙을 교육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2010)에서 나온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는 표준 교육과정 중 발음교육의 등급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1>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발음 등급별 목표

등급	내용
1급	1. 자모의 음가를 변별할 수 있다. 2. 자모의 음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3.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어의 음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p>5.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의 억양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p> <p>6. [일상적인 어휘나 표현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p> <p>7. <u>기본적인 음운 변화(연음 법칙, 자음 동화 등)를 이해할 수 있다.</u></p>
2급	<p>1.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p> <p>2. 복잡한(‘ㄴ’ 첨가, 절음 법칙)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p>
3급	<p>1. 복잡한(‘ㄴ’ 첨가, 절음 법칙)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p> <p>2. <u>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u></p> <p>3.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p>
4급	<p>1. <u>음절 단위의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다.</u></p> <p>2. <u>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u></p> <p>3. [원어민 화자가 발화하는 대부분의 통용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p> <p>4.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p> <p>5. [비원어민의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p>
5급	<p>1. 억양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p> <p>2. 발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p>
6급	<p>1. 발화 초점에 따라 적절한 발화 속도와 휴지를 유지할 수 있다.</p> <p>2. 한국의 대표적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p>
7급 ³⁷⁾	<p>1.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p>

<표 IV-1> 중 밑줄 친 부분은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교육 목표들이다. 주로 1급부터 4급까지가 기본적인 음운 변동 규칙부터 복잡한 규칙까지 이해시키고 그런

37) 국립국어원의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은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 최상급 7급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6등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한국 사회로의 정착, 학문 목적, 직업 목적, 취미 등),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변화(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다.

다음, 음절 단위부터, 단어, 그리고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또한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처럼 '[]'로 표시하는 부분도 음운 변동 규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운 변동 규칙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원어민 화자와 같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으므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Ⅲ장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음화와 유음화를 배워도 규칙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알아도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음운 변동의 의식이 약해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를 통해서 비음화와 유음화의 규칙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단어 단위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하고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구, 절, 문장 등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하고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한자어의 발음은 중국어 발음과 구별하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여섯째, 하나의 단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2.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내용

유음화는 국어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누고 있지만 두 규칙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고 학습자의 두 규칙에 대한 오류율과 인지도³⁸⁾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규칙의 단순화를 위해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하나의 항목으로 교육하기로 한다. 그리고 '생산량[생산량]'처럼 'ㄴ' 뒤 유음의 비음화는 국어학의 범주에 따라 비음화에 속하지만 '신랑

38) Ⅲ장의 내용에 따르면, 순행적 유음화의 오류율은 37.3%이고, 역행적 유음화의 오류율은 30.0%이다.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하는 단어들 중에 '들나물'의 오류율이 66.7%로 다소 높고, 나머지 5개 단어들의 평균 오류율은 31.6%로 역행적 유음화의 오류율(30.0%)과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두 규칙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도는 모두 84.4%이다.

[실랑]'과 같은 단어들은 역행적 유음화와 같은 음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음화와 같은 상위 범주로 묶어서 'ㄹ'과 'ㄴ'이 연결되는 음운 변동(간단하게 'ㄹ+ㄴ')이라고 부르고 유음화를 교육한 후에 이것을 'ㄹ'과 'ㄴ' 연결의 특수한 경우로 교육하고자 한다. 또한 'ㄹ'과 'ㄴ'이 연결되는 음운 변동 규칙은 비음화의 다양한 규칙보다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ㄹ+ㄴ'의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의 발음 오류 양상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비음화의 두 가지 하위분류인 폐쇄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의 오류율은 큰 차이³⁹⁾를 보이고 있다. 유음의 비음화 중에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42.2%)와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60.0%), 그리고 'ㄴ' 뒤 유음의 비음화(84.1%)의 오류율도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단지 국어의 범주에 따라 비음화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의 내용을 세분해서 교육하고자 한다.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ㄴ' 뒤 유음의 비음화는 유음화와 같이 교육하기로 했으므로 비음화의 내용에서는 제외한다. 비음화의 세 가지 하위분류 중에 중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류율이 낮은 폐쇄음의 비음화를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상호동화는 폐쇄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가 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서 두 규칙을 교육한 후에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육 내용을 크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2>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육 내용

규칙	내용	환경	예시
'ㄹ+ㄴ'	유음화	ㄴ→ㄹ//ㄹ	설날[설랄] 연락[열락]
	'ㄴ' 뒤 유음의 비음화	ㄹ→ㄴ/ㄴ__	생산량[생산냥]
비음화	폐쇄음의 비음화	ㅂ→ㅁ/__ㄴ, ㅁ	십만[심만]
		ㄱ→ㅇ/__ㄴ, ㅁ	학년[향년]
		ㄷ→ㄴ/__ㄴ, ㅁ	끝나다[끈나다]
	'ㄱ, ㅇ' 뒤 유음의 비음화	ㄹ→ㄴ/ㅁ, ㅇ__	음료수[음뇨수]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	ㄱㄹ→ㅇㄴ	국립[궁립]
		ㅂㄹ→ㅁㄴ	법률[범률]

39) Ⅲ장의 내용에 따라 폐쇄음의 비음화의 오류율은 25.4%로 유음의 비음화(6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ㄹ+ㄴ'의 교수·학습 내용

유음 'ㄹ'은 구강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라는 점에서 가장 모음에 가까운 자음으로서 자음의 일종으로 처리하지만 음성학적으로는 비진형적인 자음이어서 음운 과정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양순임, 2014: 221). 한국어의 음절연결제약에 따라 음절 경계에서 'ㄴ'과 'ㄹ'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학습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구별하지 않고 음절 경계에서 'ㄹ'과 'ㄴ'이 연결될 때 순서와 상관없이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는 휴지 없이 한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시한다.

가. 유음화

설날→[설랄], 연락→[열락]

발 냄새→[발램새], 일 년→[일련]

'ㄹ'계 접받침 가운데 '래, ㄹ래, ㄹ레'은 단순화되면서 'ㄹ'로 바뀌는 경우 뒤따르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것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나. 자음군단순화 후의 유음화

넉네→[넉네]→[넉레]

활는→[활는]→[활른]

일는→[일는]→[일른]

복합어에서 앞 형태소의 끝이 자음이고 뒤 형태소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일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첨가된 'ㄴ' 앞에 발음이 'ㄹ'인 경우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을 제시한다.

다. ㄴ첨가 후의 유음화

서울역→[서울녁]→[서울력]

별 얘기→[별내기]→[별래기]

마지막으로 'ㄴ'이 'ㄹ' 뒤에 나타날 때 예외 없이 모두 [ㄹ]로 발음되고, 'ㄴ'이 'ㄹ' 앞에 나타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ㄴ'이 [ㄹ]로 발음되지만 가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알아야 한다. 박숙희(2013)에서는 첫 번째 경우는 예외가 없는 규칙이므로 학습자가 익히기 쉽고, 두 번째 경우는 학습자가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기 전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라.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

입원료→[이뵤뇨], 의견란→[의견난]

맛있는 라면→[마시는나면]

'ㄴ'이 'ㄹ' 앞에 나타나는 경우 [ㄹㄹ]로 발음하는 단어와 [ㄴㄴ]으로 발음하는 단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 'ㄴ-ㄹ' 연결에 적용되는 단어들의 비교

음운 환경	'ㄴ ㄹ'	
발음	[ㄹㄹ]	[ㄴㄴ]
단어	권력[궐력], 곤란[골란], 완료[왈료], 분리[블리], 연락[열락], 전라도[절라도]	생산력[생산녁], 의견란[의견난], 입원료[이뵤뇨], 횡단로[횡단노], 상견례[상견네], 이원론[이원논]

<표 IV-2>를 보면 위의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이며 왼쪽 단어는 모두 단일어이고 오른쪽 단어는 모두 복합어이다. 단어의 형태론적 지식을 도입해서 단일어는 [ㄹㄹ]로 발음되고 복합어는 [ㄴㄴ]으로 발음된다고 교육하면 학습자의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천리[철리]'는 복합어이지만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형태론적 지식을 도입하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절수를 근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2>를 보면 왼쪽의 단어들은 대부분 2음절이고 오른쪽의 단어는 모두 3음절이다. '전라도'처럼

[ㄹㄹ]로 발음되는 단어 중에도 3음절이 있지만 양순음(2014)에 의하면 'ㄴ'으로 끝난 앞말이 1음절일 경우 '권력[꺼력]'처럼 [ㄹㄹ]로 발음하고, 'ㄴ'으로 끝난 앞말이 2음절 이상일 경우는 '생산력[생산ㄴ]'처럼 [ㄴㄴ]으로 발음한다, 즉 'ㄹ' 앞에 1음절이 있을 경우는 [ㄹㄹ]로, 2음절이 있는 경우 [ㄴㄴ]으로 발음한다는 방법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이에 '전라도[절라도]'는 3음절이라도 'ㄹ' 앞에 단지 1음절만이 있으므로 [ㄹㄹ]로 발음한다.

2.2. 비음화의 교수·학습 내용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 비음화이다. 학습자에게 비음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음절연결제약과 자음 강도표를 도입하기로 한다.

<표 IV-4> 한국어 자음 강도표

조음 위치 강도 내림차순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폐쇄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두 자음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앞 자음 ≤ 뒤 자음' 한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소개한다. 폐쇄음의 비음화('박물관[방물관]')을 예로 들면, 앞 자음인 'ㄱ'은 뒤 자음인 '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뒤 자음이 앞 자음보다 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ㄱ'을 한 단계를 낮춰서 같은 조음 위치의 'ㅇ'으로 변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ㅁ'을 한 단계를 높여서 같은 조음 위치의 'ㅂ'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음화를 실현한다.

폐쇄음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먼저 'ㅂ, ㄷ, ㄱ'이 각각 [ㅁ, ㄴ, ㅇ]으로 바뀌는 것을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이것을 'ㅂ'과 'ㅁ', 'ㄷ'과 'ㄴ', 'ㄱ'과 'ㅇ'은 각각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서 변동한다고 하기 보다는 글자 모

양이 각각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응하여 변동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학습자가 알아야 한다.

가. 폐쇄음의 비음화

학년→[항년], 끝나다→[끈나다], 입맛→[임만]

밥 먹고→[밤먹꼬], 곧 나온다→[곤나온다], 책 넣어→[챙너어]

겹받침이 단순화된 후에 폐쇄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나. 자음군단순화 후의 폐쇄음의 비음화

읽는→[익는]→[잉는]

값만→[갑만]→[감만]

‘ㄴ’이 첨가되어 앞의 폐쇄음이 비음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다. ㄴ첨가 후의 폐쇄음의 비음화

꽃잎→[꼰닙]→[꼰닙]

잡일→[잡닐]→[잡닐]

유음의 비음화란 초성인 ‘ㄹ’이 받침인 ‘ㄱ, ㅇ’뒤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두 단어를 휴지 없이 한 번에 발음할 때도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 ‘ㄱ, ㅇ’뒤 유음의 비음화

음료수→[음뇨수], 능력→[능녁],

비빔 라면→[비빔나면]

폐쇄음 뒤 ‘ㄹ’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국립’이 먼저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국닙]으로 변동한 다음에 폐쇄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궁닙]으로 변동하는 순서를 학습자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되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ㄱ’과 ‘ㄹ’, ‘ㄴ’

'과' '르'이 연결될 때 둘이 모두 변동이 일어나서 'ㄱ, ㄴ'이 [ㅇ, ㅁ]으로, '르'이 [ㄴ]으로 바뀌는 것을 제시한다.

마.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
국립→[궁닙], 법률→[범눌]
어묵 라면→[어몽나면]

3.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지도 방안

Ⅲ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의 오류 원인을 크게 규칙 인지를 못하는 것과 규칙을 인지해도 적용을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습자의 규칙 인지 향상과 규칙 사용 향상을 위한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규칙 인지 향상을 위한 발음 지도

Ⅲ장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음운 변동 규칙을 몰라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음운 변동 규칙을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규칙 인지를 향상하기 위한 발음 지도 방안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1.1. 듣기 기반의 규칙 인지 과제

음운 변동 규칙은 발음 분야에서 가장 문법적이고 형태의 정확성이 중요시하는 부분이므로 학습자가 규칙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새로 학습하는 목표어의 말소리 체계를 지각하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말소리 체계의 모든 구성 요소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한종임, 2005: 1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탐구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 기반 발음

지도(Listening-based Pronunciation Teaching)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교사가 직접 규칙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은 기억의 유지 및 규칙의 내재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먼저 듣기를 통해서 음운 변동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 다음에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려고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유음화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계한다.

과제 ①: 다음 단어와 문장의 밑 줄 친 부분의 발음을 듣고 발음과 표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해 보세요.

단어:	설날	연락	편리	생일날	사물놀이
	실내	원래	신랑	물냉면	전라도
문장:	일 <u>년</u> 후에 다시 만나요.				
	돈을 <u>내</u> 주세요.				
	이 사진 <u>잘</u> 나왔네.				
	몸살 <u>났</u> 어요.				
	<u>잃</u> 는 게 있어야 얻는 것도 있지요.				

각 단어와 문장의 발음을 두 번씩 들려준다. 발음을 듣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지, 어떤 음소가 다른지, 어떤 음소가 어떤 음소로 바뀌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듣기 기반 발음 지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별하기 과제(Identification Task)도 활용할 수 있다. 식별하기 과제는 최소대립쌍의 단어 가운데 하나만을 말하고 주어진 단어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다(한종임, 2005: 172).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단어의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과제 ②: 잘 듣고 아래 두 가지 발음 중 맞는 것에 ○표 해 보세요.

한국말	[한궁말]()	[한국말]()
작년	[작년]()	[장년]()
십만	[심만]()	[십만]()
없는데	[엄는데]()	[업는데]()
맞는	[만는]()	[만는]()
거짓말	[거진말]()	[거진말]()

또한 노래를 활용해서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학습자가 노래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배우는 환경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과제 ③: 노래를 듣고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말해 보세요.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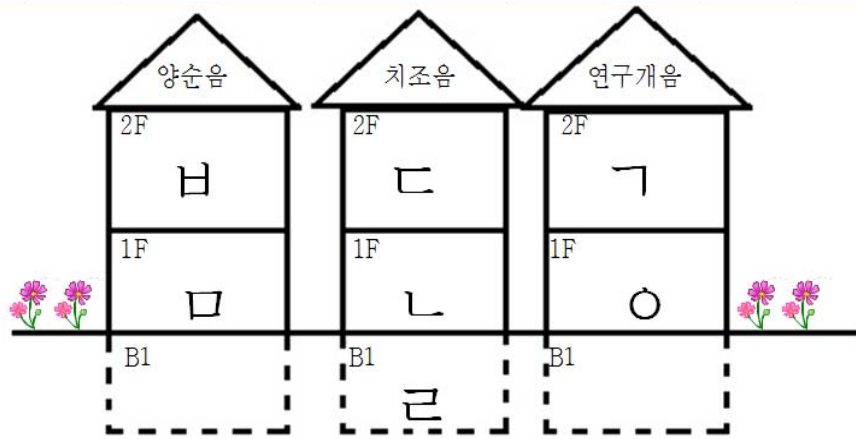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u>실리</u> 도 못가서 발병난다.

3.1.2. 원리 설명을 통한 발음 지도

학습자가 규칙을 탐구한 후에 교사가 규칙의 내용과 원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은애(2005)에서는 발음에 관련된 어떤 현상을 설명할 경우 그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동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려운 구두 설명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비음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음의 강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자음 강도표는 추상적이고 각 자음의 강도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학습자

40) 양순임(2014)의 '국[력]류의 과제3을 참조한다.

가 비음화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V-1> 자음 강도 설명을 위한 그림

위의 그림과 같이 모든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세 개의 건물로 본다. 강도가 가장 강한 폐쇄음은 2층, 비음은 1층, 유음은 지하 1층으로 설정한다.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① 앞 자음이 뒤 자음과 같은 층에 있거나 뒤 자음보다 아래층에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자음은 자기 건물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③ 모든 자음은 한 번에 한 층만을 이동할 수 있다.
- ④ 모든 자음은 1층을 선호한다.

한국어의 음절 경계에서 두 자음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하려면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높지 않아야 하는데, 즉 앞 자음이 뒤 자음과 같은 층에 있거나 뒤 자음보다 아래층에 있어야 한다.

하나의 자음이 강하거나 약하게 변동하려면 자신과 같은 조음위치의 음으로 변동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을 각각 세 개의 건물로 만들어서 자기 건물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하나의 자음이 강하거나 약하게 변동하려면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 중 가장 가까운 자음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층만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정하다.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강한 경우에는 앞 자음이 약하게 변동하거나 뒤 자음이 강하게 변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로 폐쇄음이나 유음은 비음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 비음이 있는 층을 출입이 편리한 1층으로 설정한 것이다. 학습자에게 모든 자음이 1층을 선호한다고 알린다.

교사가 예시 단어를 제시하면서 위의 그림을 통해서 음운 변동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가. 폐쇄음의 비음화('학년[항년]'을 예로 들음)

먼저 '학년'의 앞 자음이 'ㄱ'이고 뒤 자음이 'ㄴ'인 것을 확인한다. 학습자에게 그림에서 'ㄱ'과 'ㄴ'의 위치를 찾게 한다. 'ㄱ'이 2층에 있고, 'ㄴ'이 1층에 있다. 원칙에 따라 앞 자음이 뒤 자음과 같은 층에 있거나 뒤 자음보다 아래층에 있어야 하는데 'ㄱ'이 'ㄴ'보다 위층에 있다. 따라서 'ㄱ'을 한 층 내려거나 'ㄴ'을 한 층 올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음은 출입이 편한 1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ㄱ'이 한 층 내려와 1층에 가서 [ㅇ]으로 변한다.

나. 'ㄹ, ㅇ' 뒤 유음의 비음화('능력[능녁]'을 예로 들음)

'능력'의 앞 자음은 1층에 있는 'ㅇ'이고 뒤 자음은 지하 1층에 있는 'ㄹ'이다. 앞 자음인 'ㅇ'이 뒤 자음인 'ㄹ'보다 높지 않게 위해서는 지하 1층에 있는 'ㄹ'이 한 층을 올라가서 'ㄴ'으로 변하는 것이다.

다. 폐쇄음 뒤 유음의 비음화('국립[궁닙]'을 예로 들음)

'국립'의 앞 자음은 2층에 있는 'ㄱ'이고 뒤 자음은 지하 1층에 있는 'ㄹ'이다.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두 층이 높다. 하나의 자음이 한 번에 한 층만을 이동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자음이 1층을 좋아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ㄱ'이 한 층을 내려가서 'ㅇ'이 되고, 지하 1층에 있는 'ㄹ'은 한 층을 올라가서 'ㄴ'이 되는 것이다.

교사가 위와 같이 세 가지 비음화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한 후에 비음화가 나타

나는 다양한 단어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음운 변동 과정과 변동 후 단어의 발음을 탐구하게 한다.

과제: 그림을 보면서 아래 단어들의 정확한 발음, 그리고 어떻게 변동하는 것인지를 말해 보세요.

국내	국물	거짓말	끝나다	앞문	없는
음료수	대통령	기억력	독립	법률	수업료

3.2. 규칙 사용 향상을 위한 발음 지도

3.2.1. 한·중 발음 대조를 활용한 발음 지도

Ⅲ장을 통해서 유음의 비음화와 유음화의 오류 원인은 주로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유음의 비음화와 유음화는 중국어와 같은 음운적 환경을 가지지만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음절연결제약이 없으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중국 발음 습관에 따라 발음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양순임(2014)에서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에 차이가 뚜렷할 때보다 미세할 경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사한 모국어 형태와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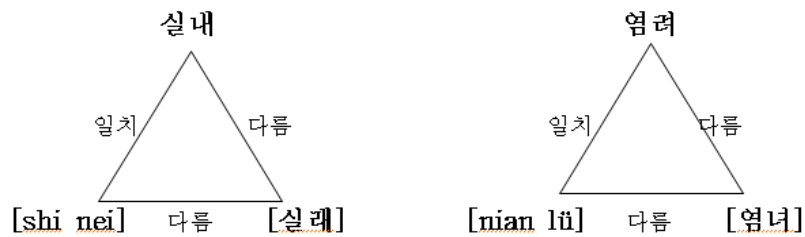
어휘나 문법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한 암시적인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발음 교육에서는 암시적 제시나 암시적 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발음 습득이 어렵다. 특히 정확성을 강조한 음운 변동 규칙 교육에서는 암시적 방법보다 명시적으로 목표 언어와 모국어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인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화식 교수법에서 도입된 최소대립쌍의 방법을 활용해서 같은 한자어의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쌍으로 제시하고 연습하도록 한다.

<표 IV-5> 한중 발음을 대조하는 예시

	중	한		중	한
표기	室內	실 내	표기	念慮	염 러
발음	[shi nei]	[실 내]	발음	[nian lü]	[염 러]

위의 표에서 진하게 표시하는 음소를 보면 같은 한자어의 중국어 발음은 한국어 발음과 다른데 오히려 한국어의 표기와 일치하다. 이것을 학습자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삼각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IV-2> 한국어 표기, 발음과 중국어 발음의 대조

위와 같은 삼각도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표기상 중국어의 발음과 일치하지만 실제의 발음이 중국어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설명을 끝나고 유음의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타나는 한자어를 많이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한자어의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을 모두 읽도록 연습시킨다.

과제: 아래 한자어의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을 모두 읽어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주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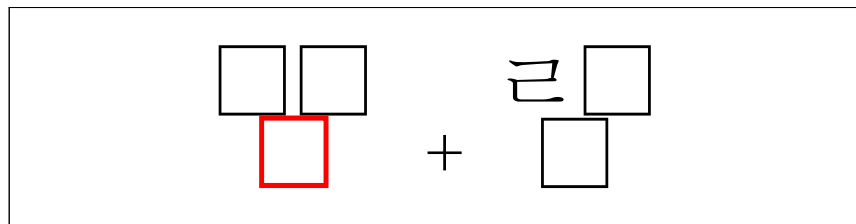
飲料 음료	能力 능력	整理 정리	大統領 대통령
登錄 등록	心理 심리	聯絡 연락	困難 곤란
便利 편리	新郎 신랑	原來 원래	一年 일 년

3.2.2.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과제

Ⅲ장의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가 하나의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표기대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하나의 단어를 볼 때 그 단어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의 단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먼저 어떤 음운 환경(조건)에서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귀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귀납하는 것은 교사가 미리 귀납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습득 효과가 높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첫 음절이 아닌 초성인 'ㄱ'이 앞의 종성과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ㄱ, ㅇ' 뒤 'ㄱ'의 비음화(예: 음료수[음뇨수]), 유음화(예: 신랑[실랑]), 'ㄴ' 뒤 'ㄱ'의 비음화(예: 의견란[의견난]), 폐쇄음 뒤 'ㄱ'의 비음화(예: 국립[궁닙]) 들은 모두 'ㄱ'에 관한 음운 변동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ㄱ' 앞에서 음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자음을 찾아내도록 한다.

과제 ①: 빨간색 '□'에 어떤 자음이 들어가서 음운 변동 규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모두 찾아보세요.



과제를 끝나고 나면 교사가 'ㄱ' 앞에 'ㄱ'이 아닌 모든 종성은 'ㄱ'과 연결될 때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ㄱ'이 나타날 때, 특히 'ㄱ'이 첫 음절이 아닌 초성일 때 꼭 음운 변동 규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무의미한 단어를 통해서 연습하도록 한다. 다음 과제에서 비음화와 유음화에 맞는 음운 조건을 가지면서 무의미한 단어를 만들어 학습자에게 보여 주고 실제 발음을 쓰고 읽어보게 하는 것이다.

과제 ②: 아래 단어의 실제 발음을 '[]' 안에 쓰고 읽어보세요.

악나[]	암라[]	알마[]
악라[]	압나[]	악마[]
앙라[]	알나[]	압라[]
암마[]	알나[]	안라[]

3.2.3. 의식 강화를 위한 과제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음운 변동 규칙을 알아도 음운 변동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이 단어에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표기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대로의 발음을 차별하게 의식하게 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차별하기 과제'는 학습자에게 음운 변동을 해야 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는 단어의 표기 발음과 실제 발음을 읽어 주고 둘을 동일한 발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과제이다.

과제 ①: 아래 단어의 표기 발음과 실제 발음을 듣고, 두 발음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교사			학생 활동지
단어	표기 발음	실제 발음	
1. 분리	[분리]	[불리]	1.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2. 폭력	[폭력]	[풍력]	2.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3. 발목	[발목]	[발목]	3.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4. 함락	[함락]	[함낙]	4.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5. 국물	[국물]	[궁물]	5.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6. 감기	[감기]	[감기]	6.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7. 갈비	[갈비]	[갈비]	7.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8. 십리	[십리]	[심니]	8. 일치하다 <input type="checkbox"/>	일치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그리고 학습자가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의 의식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여러 단어들 중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찾는 과제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음운 변동 규칙 찾기' 과제는 학습자의 음운 변동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제 ②: 아래 단어들 중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을 찾아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빨간색의 단어들은 어떤 도형을 만드는지 말해보세요.

관광	합리	앞니	눈썹매	정리	줄넘기	공부
정신력	청나라	발견	겉모습	털모자	신발	함박눈
감량	놀리다	활동	실력	참석	냉장고	한라산
딸기	백련사	항공사	독창적	물론	인류	건물
노란색	넌뛰기	박람회	신청서	콧물	열리다	금나라
전망대	홀룡	발굴	난로	삼푸	평범	선녀

'과제 ②'는 주로 단어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찾는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생활에서 학습자는 단어보다 문장을 읽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화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문장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찾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제 ③: 받침 소리 'ㅂ, ㄷ, ㄱ'을 'ㅁ, ㄴ, ㅇ'으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41)



4.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실제

허용·김선정(2006)에서는 교육 단계에 따른 발음 교육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제시 단계(Presentation)

이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발음과 음운 규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보통 설명과 분석, 그리고 듣고 구별하기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연습 단계(Practice)

41) 과제 ③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2) 2권 37쪽의 대화 연습을 참조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로 연습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발음을 모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습득한 발음을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생성 단계(Production)

이 단계의 목표는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발음을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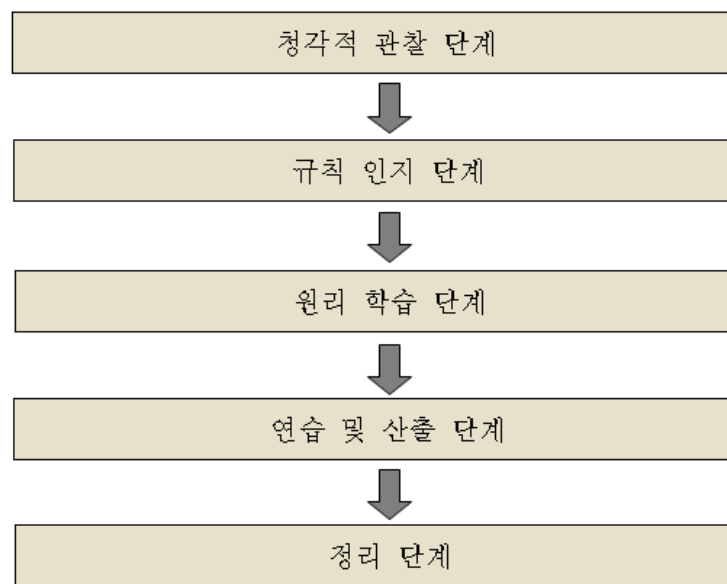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는 위의 '제시 단계 - 연습 단계 - 생성 단계'와 같은 교육 모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양순임(2014)에서는 발음교육의 수업 단계는 '도입 단계 - 제시·설명 단계 - 연습 단계 - 활용 단계 - 정리·확인 단계'와 같이 5단계로 나누었다. 양순임(2014)에 따르면 도입 단계는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제시·설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설명을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연습 단계는 정확성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 전형적인 예문을 활용해야 한다. 활용 단계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한다. 마지막 정리·확인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또한 음운 변동 규칙은 발음 교육 분야에 속하나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단계를 설계할 때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한재영 외(2008)에서는 문법 교수·학습 단계를 '도입 단계 - 인지 학습 단계 - 원리 학습 단계 - 적용 학습 단계 - 정리 단계'로 나누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며 배경지식을 확장한다. 인지 학습 단계는 문법의 일정한 규칙을 예측해 보는 단계이다. 원리 학습 단계에서는 문법 사용의 원리나 규칙, 방법을 깨닫고 교사의 시범을 따라한다. 적용 학습 단계는 실제적인 의사소통과 유사한 상황에서 문법의 사용 원리나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정리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규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앞에 논의했듯이 듣기 기반의 발음 지도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운 변동 규칙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듣기를 통해서 충분한 입력을 제공하는 '청각적 관찰' 단계가 필요하다. 청각적 관찰을 통해서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예측해 본 다음에 교사가 규칙의 내용과 원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강화시킨 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교수·학습 단계를 설계한다.



<그림 IV-3> 비음화와 유음화의 교수·학습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청각적 관찰 단계이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의 규칙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 듣기를 통해서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관찰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에게 비음화와 유음화의 각 세부적인 항목에 적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단어와 문장이 적혀 있는 활동지를 학습자에게 나누어줘 학습자가 단어의 발음을 들으면서 해당 단어의 표기를 주목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 인지 단계이다. 학습자가 비음화와 유음화의 규칙 내용을 예측해 보는 단계이다. 발음을 듣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지, 어떤 음소가 다른지, 어떤 음소가 어떤 음소

로 바뀌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원리 학습 단계이다. 교사가 비음화와 유음화의 규칙 내용과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또한 중국어와 비슷한 음운 환경을 가진 유음화와 유음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중국어의 발음과 대조하여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 그리고 한국어 표기의 관계를 인식시켜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연습 및 산출 단계이다. 발음 교육에서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내용을 한층 더 이해하고 그들이 적용되는 단어의 발음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교사의 피드백도 중요하다. 교사가 확실하게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 단계는 정리 단계이다.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학습한 내용을 귀납한 후에 평가하는 단계이다.

한재영 외(2008)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 절차는 편의상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단계가 지나더라도 다시 전단계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각 단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상황은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수업으로 상정하여 수업 시간은 50분이다. 수업 내용은 1차시-‘ㄴ+ㄹ’ 연쇄, 2차시-폐쇄음의 비음화, 3차시-유음의 비음화로 구성하였다.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 수업 지도안		
차시	2차시	
학습목표	1) 폐쇄음의 비음화 규칙의 내용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폐쇄음의 비음화 원리와 음운 변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3)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음운 변동을 빠르게 찾아서 정확하게 적용하여 발음할 수 있다.	
수업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목표
청각적 관찰 단계	● 폐쇄음의 비음화('ㄱ→ㅇ/_ㅁ, ㄴ', 'ㄷ→ㅁ/_ㅁ, ㄴ', 'ㄷ→ㄴ/_ㅁ, ㄴ')에 적용되는 단어들을 활동지에 제시하고 각 단어의 발음을 두 번씩 들려준다. 학	◆ 학습자가 스스로

5분	<p>습자가 단어의 발음을 들으면서 해당 단어의 표기를 주목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단어의 발음을 듣고 발음과 표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해 보세요. (활동지 1) <p>활동지 1-1</p> <p>국내 작년 학년 한국말 흙먼지 낙농 백만 국물 함박눈 목마르다</p> <p>활동지 1-2</p> <p>앞문 십만 월급날 입맛 옆모습 읍내 겹눈 밥물 앞니 연습문제</p> <p>활동지 1-3</p> <p>거짓말 콧물 찢눈 옛날 맘머느리 웃놀이 날말 꽃눈 빛나다 끝나다</p>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규칙 인지 단계 5분	<p>● 발음을 듣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p> <p>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지, 어떤 음소가 달라지는지, 어떤 음소가 어떤 음소로 바뀌는지, 또는 변동하는 음소가 어떤 음운 환경에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p>	◆ 학습자가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원리 학습 단계 20분	<p>● 학습자가 예측한 규칙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5분)</p> <p>폐쇄음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p>	◆ 폐쇄음의 비음화의 규칙 내용을 이해시킨다.

$$\begin{Bmatrix} \neg \\ \text{ㅂ} \\ \text{ㄷ} \end{Bmatrix} + \{\text{ㅁ}, \text{ㄴ}\} \Rightarrow \begin{Bmatrix} \text{ㅇ} \\ \text{ㅁ} \\ \text{ㄴ} \end{Bmatrix} + \{\text{ㅁ}, \text{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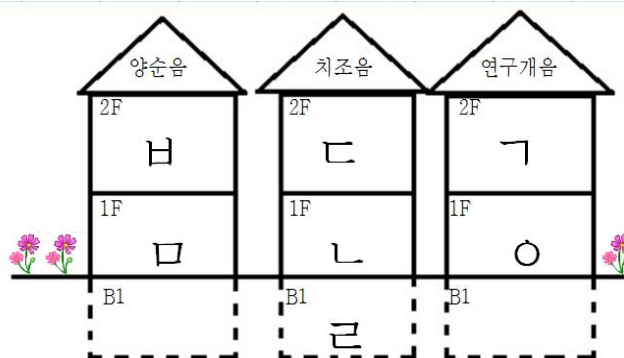
'ㅂ'과 'ㅁ', 'ㄷ'과 'ㄴ', 'ㄱ'과 'ㅇ'은 각각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서 변동한다고 설명하기보다 글자 모양이 각각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응하여 변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받침 발음을 학습할 때 이전에 배운 평폐쇄음화를 복습시켜 'ㄱ, ㄲ→[ㄱ]→[ㅇ]', 'ㅍ, ㅂ→[ㅂ]→[ㅁ]', 'ㅌ, ㄷ,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ㄷ]→[ㄴ]'을 제시한다.

● 자음 강도표를 이용하여 폐쇄음의 비음화의 원리를 설명한다. (15분)

자음 강도표는 추상적이고 각 자음의 강도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폐쇄음의 비음화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2



◆ 폐쇄음의 비음화 규칙 원리를 이해시킨다.

	<p>위의 그림과 같이 모든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세 개의 건물에 넣는다. 강도가 가장 강한 폐쇄음은 2층, 비음은 1층, 유음은 지하 1층으로 설정한다.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원칙의 내용을 설명한다.</p> <p>① 앞 자음이 뒤 자음과 같은 층에 있거나 뒤 자음보다 아래층에 있어야 한다.</p> <p>② 모든 자음은 자기 건물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p> <p>③ 모든 자음은 한 번에 한 층만을 이동할 수 있다.</p> <p>④ 모든 자음은 1층을 선호한다.</p> <p>교사가 예시 단어('학년[향년]'을 예로 들음)를 제시하면서 위의 그림을 통해서 음운 변동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학년'의 앞 자음이 'ㄱ'이고 뒤 자음이 'ㄴ'인 것을 확인한다. 학습자에게 그림에서 'ㄱ'과 'ㄴ'의 위치를 찾게 한다. 'ㄱ'이 2층에 있고, 'ㄴ'이 1층에 있다. 원칙에 따라 앞 자음이 뒤 자음과 같은 층에 있거나 뒤 자음보다 아래층에 있어야 하는데 'ㄱ'이 'ㄴ'보다 위층에 있다. 따라서 'ㄱ'이 한 층을 내려가거나 'ㄴ'이 한 층을 올라가야 한다. 또한 모든 자음이 출입이 편한 1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ㄱ'이 한 층을 내려가서 1층에 가서 [ㅇ]으로 변한다.</p> <p>교사가 설명한 후에 폐쇄음의 비음화가 나타나는 다양한 단어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음운 변동의 과정과 변동 후의 단어의 발음을 탐구하게 한다.</p> <p>• 그림을 보면서 아래 단어들의 정확한 발음, 그리고 어떻게 변동하는 것인지를 말해 보세요.</p>	
--	--	--

	<p>활동지 3</p> <p>국내 국물 거짓말 끝나다 앞문 겹눈</p>	
<p>연습 및 산출 단계 15분</p>	<p>● 규칙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 식별하기 과제를 활용한다. 식별하기 과제는 최소대립쌍의 단어 가운데 하나만을 말하고 주어진 발음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다.</p> <p>• 잘 듣고 아래 단어를 맞게 발음한 것에 ○표 해서 따라 읽어 보세요. (활동지 4)</p> <p>한국말 [한궁말]() [한국말]() 작년 [작년]() [장년]() 십만 [십만]() [십만]() 없는데 [엄는데]() [엄는데]() 맞는 [만는]() [만는]() 거짓말 [거진말]() [거진말]()</p> <p>● 학습자가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의 의식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여러 단어들 중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찾는 과제를 한다.</p> <p>• 아래 단어들 중에 음운 변동 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들을 찾아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빨간색의 단어들은 어떤 도형을 만드는지를 말해보세요. 모든 단어를 찾은 후에 선생님이 따라 읽어보세요.</p> <p>활동지 5</p>	<p>◆ 학습자가 단어의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p> <p>◆ 학습자의 음운변동 의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1차시에 학습한 'ㄴ+ㄹ'도 같이 복습한다.</p>

관광	천리	앞니	눈썰매	거짓말	줄넘기	공부
정신력	청나라	발견	겉모습	털모자	신발	함박눈
실내	놀리다	활동	실력	참석	냉장고	한라산
딸기	의견란	항공사	독창적	물론	인류	건물
노란색	널뛰기	밥맛	신청서	콧물	열리다	금나라
전망대	홀룡	발굴	난로	삼푸	평범	선녀

● 문장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찾아 연습하도록 한다.

• 받침 소리 'ㄷ, ㄸ, ㄱ'을 'ㄱ, ㄴ, ㅇ'으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활동지 6)



◆ 대화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문장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찾도록 한다.

<p>정리 단계 5분</p>	<p>● 무의미한 단어의 발음을 쓰도록 한다.</p> <p>비음화와 유음화에 맞는 음운 조건을 가진 무의미한 단어를 만들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각 단어의 실제 발음을 쓰고 읽어보게 하는 것이다.</p> <p>• 아래 단어의 실제 발음을 '[]' 안에서 쓰고 읽어보세요. (활동지 7)</p> <p>악나[] 알마[] 악마[] 압나[] 압마[] 알나[]</p>	<p>◆ 학습한 내용을 복습한다.</p>
-------------------------	--	------------------------

비음화와 유음화를 교수·학습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에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음운 변동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음 연습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발음 수업 외의 다른 수업 시간에도 교사는 학습자가 본문을 읽거나 대화문을 만들 때 항상 음운 변동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음 오류를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

V. 결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음 교육은 중요성을 가진다. 한국어에는 표기와 실제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더라도 음운 변동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 경계에서 자음과 자음이 연결될 때 매우 복잡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국어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은 10개의 음운 변동 규칙 중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발음 오류 양상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와 같은 음운적 환경이 있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비음화와 유음화를 더 어려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II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 교육 설계의 전제를 마련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범주와 분류를 고찰하였고, 연구 대상인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하여 각 항목의 내용과 원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소 배열 제약, 그리고 음운 변동 규칙을 대조·분석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을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을 밝혔다. 또한 중국 대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어(개정판)』(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2008), 『한국어교정』(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 『기초한국어』(연변대 조선-한국학 학원, 2009), 『표준한국어』(북경대 등 25개 대학교 공동 편저, 2002), 총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음운 변동 규칙 제시의 양상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III장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의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북경어언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흑룡강대학교의 재학생 총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크게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와 발음 오류의 원인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발음 오류의 양상 조사는 비음화와 유음화를 세분된 9항목에 적용되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학습자에게 읽어보게 하고 녹음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3명이 따로 녹음을 듣고 발음 오류를 진단하였다. 통계 결과에 의해서 초·중·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차이를 비교하면 초급과 중급 학습자의 오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 차이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가 중급에 올라가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향상된 반면에 중급 학습자가 고급에 올라가서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서 퇴화라고 할 수 없지만 향상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학습자의 오류율과 해당 규칙에 대한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인지도가 높은 규칙의 오류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습자의 발음 오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내용을 녹음한 후에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내용분석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변동 규칙 오류는 크게 규칙 인지를 못해서 규칙 사용을 못하는 경우와 규칙을 인지해도 적용을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 인지를 못하는 원인은 주로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복잡성과 교육적인 문제를 들 수 있고,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주로 음운 변동 규칙을 반응하는 시간이 부족한 원인, 음운 변동 의식이 약한 원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원인, 교육적 문제에 의한 원인 등이다.

IV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지도 방법을 설계하였다. 발음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발음 지도 방안을 적용하였다. 학습자의 규칙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듣기 기반의 규칙 인식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음운 변동 규칙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원리 설명을 통한 발음 지도를 통해서 학습자가 비음화와 유음화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규칙 사용 향상을 위해서는 한·중 발음 대조를 활용한 발음 지도,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과제, 그리고 의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수·학습 모형을 '청각적 관찰 단계-규칙 인지 단계-원리 학습 단계-연습 및 산출 단계-정리 단계'와 같이 구성하였다.

참고문헌

1. 자 료

<한국어 교재>

북경대 등 25개 대학교 공저(2002), 표준한국어 1-2권, 북경대학출판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2009), 한국어(개정판) 1-2권, 민족출판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권, 랭기지플러스 <한글파크>.
연변대 조선-한국학학원(2008), 기초한국어 1권,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교정 1권, 세계도서출판회사.

<보고서>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2. 국내 논저

강수(2013), 학습단계별 발음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현상 발음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거찌앤나(2015), 북경어권 중국인 학습자들 중심으로 한 한국어 음운 규칙 습득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미(2008),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허용(2005), 발음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김용렬(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자음동화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애(2005), 발음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김은애(2006),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Vol. 17, 71-97쪽.
- 김태경(2000), 비음화와 유음화의 적용 기제에 대하여, 한국어학 Vol. 11, 227-259쪽.
- 김형복(2004),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 연구, 한국어 교육 Vol. 15, 23-41쪽.
- 김형엽·이현구(2005), (영어 학습자와 교사를 위한) 영어 발음 지도, 서울: 경진문화사.
- 나미경(2012), 자음 체계표를 활용한 비음화·유음화 현상의 원리 지도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천연(2013), 표준 발음법의 이해, 월인.
-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Vol. 22, 261-334쪽.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교육의 의의와 방향, 한국문법교육학회 Vol. 12, 1-37쪽.
- 박덕유 외(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교육 연구, 박문사.
- 박선우(2006), 한국어 /nl/의 비음화에 대한 유추적 분석, 언어연구 Vol.23, 1-34쪽.
- 박선우(2007), 한국어 /nl/의 변이에 대한 분석: 패러다임 분석과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Vol. 36, 1-22쪽.
- 박숙희(2013), 한국어 발음 교육론, 역락.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서울: 신구문화사.
- 배주채(2010), 한국어 기초어휘집, 한국문화사.
-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개정판), 삼경문화사.
- 사효운(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자음 연쇄 발음

- 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복희(2012),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수페이(201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비음화 교육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민수(2010), 한국어와 영어차용어의 비음화 및 유음화 연구, 현대영어문학 Vol. 28, 215-235쪽.
- 양순임(2007), (학교 문법의 이해)말소리, 서울: 제이앤씨.
- 양순임(2013), 'ㄹ' 관련 음운변동 교육내용 분류와 초성 'ㄹ' 관련 변동규칙 교수·학습 방안, 한국어 교육 Vol. 24, 155-176쪽.
- 양순임(2014), 한국어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 태학사.
- 양지이(2011), 한국어 비음화 교육 방안 연구-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홍(2013), 초·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동화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아연(2009), 한국어의 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에 대한 지도방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2011),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하나(2013), 지각(知覺)훈련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의 평음·유기음·경음 습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돈(2007), 중국어 음운학, 學古房.
- 이진호(2012),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장경평(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현상 비교 연구: 자음과 관련된 현상을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설교(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습득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향실(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 연구, 한국언어문학 Vol. 65, 137-158쪽.

- 장향실(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규칙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Vol. 46, 367-390쪽.
- 정명숙(200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정정덕(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발음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Vol. 8, 1-29쪽.
- 정권주(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ㄴ'과 'ㄹ' 연쇄 발화에 대한 오류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주·김영주(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Vol. 47, 165-187쪽.
- 정효주(2013), 중국인 학습자의 비음화 및 유음화 발음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 외(2008), 사회조사방법론, 과주: 교문사.
- 최효선(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동화 규칙 인지와 산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 교육, 서울: 한림.
-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
- 한종임(2005), 영어음성학과 발음지도: 영어교육학적 접근, 서울: 한국문화사.
- 허용(2002),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운론적 고찰,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523-543쪽.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박이정.
- 허용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허유라·박덕유(2012),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음운 변동 규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Vol. 90, 363-388쪽.

3. 외국 논저

- 앤후이 린(2010), 중국어 말소리, 엄익상 외 옮김, 서울: 역락.

- 장 진취엔(2002), 현대중국어 생성음운론, 엄익상 옮김, 서울: 學古房.
- 黃伯榮 외(2007), 現代漢語(上冊), 高等教育出版社.
- Horwitz, E. K.(2008), Becoming a Language Teacher: A Practical Guide to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rson Education; 전병만 외 옮김(2010), 유능한 언어 교사 되기, 시그마프레스.
- Uwe Flick(2002), Qualitative Sozialforschung; 임은미 외 옮김(2009), 질적 연구방법, 파주: 한울.

<부록> <발음 오류 양상 조사 설문지>

调查问卷

您好，本次问卷采用的是不记名的形式，旨在考察学习韩语的中国人对于韩语发音的掌握情况。为了保证调查的真实性，请不要参考任何词典或资料，根据自己掌握的情况回答问题。

本人担保，研究的结果将绝不会用于研究以外的其他任何用途。

感谢您的参与和支持。

首尔大学师范学院 韩国语教育专业 硕士课程

研究者：杨一

◆ 个人信息

- 性别： ☐男 ☐女
- 年龄：
- 学校：
- 年级：
- 学习韩语时间：☐少于半年 ☐半年到一年 ☐1年以上 ☐2年以上
☐3年以上 ☐4年以上
- 韩国语水平：☐TOPIK ()级 ☐未测试

◆ 请朗读下列单词。（每个单词间请间隔2~3秒）

겹눈	법률	염려하다
국립	빛나다	음료수
끝나다	생산량	임진관
낙농	설날	입원료
답례	신랑	폭력
막내	실내	칼날
맡머느리	십만	학년
목련	앞문	함락
민란	연락	합리적

◆ 请用正常语速朗读下列句子。

1. 그는 일을 추진할 만한 박력이 없다.
2. 녹내장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3.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나빠지죠.
4. 대학로에 공연이 있어요.
5. 들에서는 들나물을 뜯기도 했어요.
6. 등록금에 수업료가 포함돼요.
7.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8. 신의 섭리를 따르다.
9.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10. 아이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11. 요즘 입맛이 없어요.
12. 우리 누나가 상견례를 했어요.
13.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14. 음악을 듣는데 전화가 왔어요.
15. 이기려면 체력과 정신력 둘 다 중요해요.
16. 일 년 후에 다시 만나요.
17. 자꾸 약속 시간을 바꾸면 곤란해요.
18. 작년에 읍내로 내려갔어요..
19. 잘난 사람이 있어야 못난 사람이 있다.
20.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란에 써 주세요.
21. 지하철이 버스보다 편리해요.
22. 컵라면 한 개만 주세요.
23. 한국의 전래 동화 알아요?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i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for Chinese Speaking Learners

Yang Y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relia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can be used in Korean education, which will improve nasalized and lateralized pronunciation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In Chapter II, the background of nasalized and lateralized pronunciations were introduced. Als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nunciation are looked at closely through a comparison of phonemic syllables and final consonan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the learners' mother tongue could cause the errors in both the perception and actual pronunciations.

In Chapter III, an experiment aims to examine errors in nasalized and lateralized pronunciations made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was demonstrated.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beginner-, advanced- and high-level groups, and each group includes 15 learners.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were divided into each environment, their error rates, phases and causes were examined.

As for the phase of the learners' errors in nasalized pronunciations, they

made errors such as omissions in ‘an environment of the nasalization of obstruents’; incomplete applications of phonological rules; and non-applications of nasalization at word boundaries while they made many errors in pronunciations as spellings in ‘an environment of the nasalization of liquid consonants.’ In ‘an environment of the nasalization of obstruents and liquid consonants’ where learners showed the highest error rates, there were various errors such as omissions, incomplete applications of phonological rules, and errors in pronunciations as spelling. Also, through a simple nasal sound pronunciation experiment, the Chinese learners’ errors in nasalized pronunciations were not a problem of the nasal sound pronunciation itself but caused by the lack of their understanding of the nasalization phenomenon.

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error pronunciation of the learners. The interview is conducted in the form of semi-structured was transferred after recording all the details. The transfer was organ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for information.

In Chapter IV the educational method of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and a model for Korean phoneme classes was designed. Depending on the cause of the error pronunciation teaching methods were applied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the cognition of rules Listening-based Pronunciation Teaching method was used to help the learners to explore the rules themselves.

* Key word: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nunciation Education, Pronunciation Rules, Nasalization, Lateralization, Error Analysis

* Student number: 2012-24031